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Annual Report on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XVI)

윤정숙·강태경·조영오·이승진·나주원·정세윤·강민정·심인식·김석범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이전보다 복잡다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 간 정보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상 역시 갈수록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새로운 난제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범집행 당국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초국가적 조사와 기소에 가담할 때 범죄자들은 사법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이용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으며,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역으로 초국가적 범죄가 확산되는데 이용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는 ①국제적 현안에 대한 UN과의 기본적 협력을 필두로 ②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③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의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첫 번째 전략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UNODC/UNPNI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별 해외 사법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최신 연구 결과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는 다양한 형식의 발간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영문홍보콘텐츠 개발과 함께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금년도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는 사업의 총괄적 기획을 국제협력실장이 맡고 크게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국제관계팀과 국제학술팀에

ii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배분하였습니다. 세부과제는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UN·국제협력과 관계된 사업은 국제관계팀에서, 국제학술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의 진척 과정에서는 팀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팀 구성원 간, 그리고 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시켰습니다.

각 세부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준, 국제관계팀과 국제학술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관계의 협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준 강태경 국제관계팀장을 비롯, 나주원 전문원, 정세운 전문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영문저널의 지속적 발간과 국제공동연구, 영문 홈페이지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준 조영오 국제학술팀장을 비롯, 이승진 선임전문원, 강민정 위촉전문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제협력실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외부 전문가 분들 및 독자들께서도 저희 연구에 끊임없는 격려와 자문 및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국제협력실장 윤정숙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윤정숙

서 론 7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9

제2절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13

1.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3

2.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4

3.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15

4.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17

제3절 전략별 사업추진에 대한 팀별 분장 18

제2장 윤정숙

주요사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21

제1절 주요 사업 추진 내용 23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4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25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25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25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26

6. 세부과제 6: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26
제2절 사업 추진 방법	26
1. 문헌 연구	26
2. 양해각서(MOU) 체결	27
3. UN 국제회의 참가 및 워크숍 기획	27
4. 국제학술회의·세미나 기획 및 개최	27
5. 국제공동연구 추진	27
6. 영문편찬물 발간 사업	28
7.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28

제3장 윤정숙·강태경·조영오·심인식·김석범·이승진·나주원·정세윤·강민정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29

제1절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요약	31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31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34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36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40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45
6. 세부과제 6: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48
제2절 전략별 주요 사업의 성과	53
1.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53
2.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57
3. 전략 3: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59

제4장 윤정숙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제언 61

제1절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63

- 1.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 전년도 사업 문제점 반영 정도 63
- 2.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반영정도 66
- 3.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I: 전략별 추진 정도 68

제2절 제언 및 결론 73

- 1. 사이버범죄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실무협력 강화 73
- 2. 마약범죄에 관한 동남아 유통차단 및 치료재활적 접근 강화 75
- 3. 초국가적 조직범죄(TOC)의 지속적 연구 및 교류확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76
- 4. 코로나 19로 인한 범죄영향 지속 연구 및 정책 제언 필요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차례

[표 1-2-1] 전략 1의 연도별 세부 목표	15
[표 1-2-2] 전략 2의 연도별 세부 목표	16
[표 1-2-3] 전략 3의 연도별 세부 목표	17
[표 1-3-1] 국제협력실 내 팀별 업무 분장	19
[표 3-1-1] TOWS 매트릭스 분석 - VFAC 사업	43
[표 3-1-2] 온·오프라인 배포처 현황	50
[표 4-1-1] 국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I: 전년도 개선방안 반영정도	64
[표 4-1-2] 국제협력실 성과 모니터링 II: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기준	66
[표 4-1-3] 전략 1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	69
[표 4-1-4] 전략 2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	71
[표 4-1-5] 전략 3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	72



그림 차례

[그림 1-2-1] 국제협력실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13
[그림 2-1-1]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사업의 구성현황	24
[그림 3-1-1] 2019년 기준 메스암페타민 밀수 경로의 변화	36
[그림 3-1-2] 한국 경찰의 사이버범죄통계 수집 체계 (ECRM)	38
[그림 3-1-3] 미국의 사이버범죄통계 수집 체계	39
[그림 3-1-4] 다국어홈페이지 추진 전략	51
[그림 3-1-5] 홈페이지 개편시 기능개선사항	52
[그림 1-2-1] 국제협력실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13

국문요약

금년도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는 사업의 총괄적 기획을 국제협력실장이 맡고 크게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국제관계팀과 국제학술팀에 배분하였다. 세부과제는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UN·국제협력과 관계된 사업은 국제관계팀에서, 국제학술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전체사업의 추진전략과 사업배분, 전략별 사업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의 주요요약을 담고 있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는 ①국제적 현안에 대한 UN과의 기본적 협력을 필두로 ②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③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수행하여 왔다.

본 사업의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첫 번째 전략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UNODC/UNPNI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별 해외 사법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최신 연구 결과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전략인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는 다양한 형식의 발간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영문홍보콘텐츠 개발과 함께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 사업의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보고서는 각 전략별로 세부사업의 주요결과를 분석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정도, 그리고 전년도 사업성과의 한계에 대한 보완 정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총괄보고서 이외의 각 세부사업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과제 1: UN 및

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범죄방지를 위해 UN과의 협력과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추진 과정과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UN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과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우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0년도 UNODC 연구·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 사태의 영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와 마약·부패 및 초국가적 범죄 방지 관련 활동을 살펴보았다.

'2020년도 UN 교류협력'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KIC-UNODC 국제공동연구', 'PNI 온라인 회의 참가', 'KIC-TIJ 특별대담 개최'와 같은 UN/UNPNI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보았다.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에서는 아태지역 형사정책 분야 연구자 및 실무가의 교류협력 강화와 실질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기획·개최한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MOU체결 기관이자 PNI 기관으로서 활발한 교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거버넌스 대학, 태국사법연구원(TIJ) 및 국내유관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PSI)가 참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범죄 동향의 변화, 코로나19 대응 봉쇄조치로 인한 호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증가, 코로나19가 조직범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의 인권적 함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의 범죄 동향 변화가 다루어졌다.

'제7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개최'에서는 사이버 범죄 개관, 사이버 경제범죄,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성범죄를 주제로 구성된 4개 세션에 국내외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사이버범죄의 도전과 과제: 예방·공조·안전(Challenges of Cybercrime as Opportunities: Prevention, Cooperation and Safety)'의 프로그램과 준비 과정

등이 다뤄졌다.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법 합성 마약 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동남아 마약시장과 한국 마약시장의 연계성을 입증하였다. 2015년부터 최근 수년간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 3개국이 국경을 접하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합성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여러 역내 국가가 마약 시장에 합성 마약류의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불법 합성 마약류의 공급과잉 현상은 아세안 국가들의 공급 차단과 수요자 엄벌 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불법 마약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마약류 공급 차단 활동은 마약류 공급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마약 수요자에 대한 엄벌 조치는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경범죄자의 구금과 수용시설의 과밀화로 이어져 인권침해,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높은 재범률 문제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동남아 및 한국 마약시장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할 때 동남아 국가의 실효적인 마약류 통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한국 정부가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아세안 국가의 마약류 퇴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 활동의 사례로 ① UNODC가 주관한 마약류 통제에 관한 메콩강 접경국 간의 상호협정(Mek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② 유엔 마약위원회(CND)의 범죄추세 보고서 발간과 Good Practices Portal을 통한 실무경험 공유, ③ 세계보건기구(WHO)와 UNODC의 마약 오남용자 재활·치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연구는 향후 중요한 지원 분야로 전구물질 통제 체제의 강화, 아세안 국가 법집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구물질 통제 교육 훈련 제공을 강조하였다.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는 한국과 미국 경찰의 사이버범죄 분류 및 측정체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보다 적실성 있는 증거기반 예방활동 (evidence-based prevention)을 도모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공식통계 측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 등

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의 방법을 통해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정교한 사이버범죄 측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측정시스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적으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비교 가능한 기준 사이버 범죄(index cybercrime)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원래 기준 범죄(index crime)는 어느 한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에 널리 사용되는 범죄를 말하는 바 -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등- 사이버범죄도 그러한 기준범죄(index cybercrime)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그간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세밀한 통계를 수집해온 한국이 기준 사이버범죄 선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은 '사이버범죄 방지 가상 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이하 'VFAC'이라 함)' 사업의 기존 성과와 현재 운영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VFAC 사업의 리뉴얼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SWOT 분석'에서는, VFAC 사업의 리뉴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SWOT 분석기법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리뉴얼 방향에 관한 네 가지 유형의 전략(SO, ST, WO, WT)을 도출하였다.

VFAC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유엔 PNI와의 사이버범죄 및 TOC 범죄 관련 장기 연구협력' 전략이 본 연구원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진 VFAC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주제 영역을 '사이버범죄 및 TOC(초국가적 조직 범죄)'로 확대하고, 목표청중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수정하고, 플랫폼의 기능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정 및 성과 등 전문 정보 제공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VFAC 사업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유엔 PNI로서의 본 연구원의 정체성과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과제 5: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은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창간한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의 발간과

정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IJC는 형사정책분야의 영문학술저널로, 형사정책마련 및 법률안 제시과정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증거기반의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고, 나아가 국내외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20년에는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를 확립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편집위원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DB를 구축하여 논문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을 확장하고, 일부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심사논문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둘째, 논문심사를 상시화하고, online first service 및 DOI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자와 저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보다 빨리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논문 투고자, 심사자 및 심사 프로세스 진행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새롭게 개편될 영문 홈페이지에 저널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독립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과제 6: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은 영문으로 발간되는 연구 성과물 및 그 외 간행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연구원 다국어홈페이지를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는 그동안 KIC Research in Brief 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발간을 시작하였다. 본 간행물은 당해년도 보고서 중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보고서를 선별한 후 소논문 형태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매달 1편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올 해 9개의 보고서가 발간 및 배포되었다. TPCJ는 새로운 간행물의 양식을 알리고자, 정부유관기관, 학계를 비롯 700여 곳 이상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MOU기관, 국제적 교류가 있었던 전문가, 학자, 실무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DB를 활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포하고 있다. 기존의 배포처를 모니터링하여 앞으로도 배포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토대로 새롭게 개편될 다국어홈페이지의 핵심가치를 '공유와 소통'으로 정하였고, '편리성 제고', '다국어홈페이지의 콘텐츠 고도화', '홈페이지 콘텐츠의 전문성 증대', '홈페이지의 확산기능 보강', '다국어홈페이지를

6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둘러싼 모니터링시스템 신설, '홈페이지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개편사업의 목표로 정하였다. 개편사업이 마무리 되는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영문홈페이지의 메뉴가 Topics, Publications, Networks, Events, About Us의 순으로 구성되고 전체 화면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을 하는 배너의 가시성이 더욱 보강될 뿐 아니라, 전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끼리의 태깅(Tagging)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접속 시간 대비 얻는 정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1 장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서 론

윤 정 숙

제1절 |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이전보다 복잡다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 간 정보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상 역시 갈수록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새로운 난제들을 형성하고 있다. 범집행 당국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초국가적 조사와 기소에 가담할 때 범죄자들은 사법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이용해 범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역으로 초국가적 범죄가 확산되는데 이용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 초국가적 범죄로 사이버 범죄, 마약범죄, 부패범죄, 인신매매 등은 그 수법이 암호화, 익명화, 폐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기준 등 법적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집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범죄의 탐지와 수사, 기소 등에서 국제공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UN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약(부다페스트 조약)¹⁾, 불법자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규정²⁾,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1)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1년 협약개시)은 사이버범죄에 관해 유일하게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도구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협약국이 국내 입법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약에 가입된 당사국간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벌어지는 외국인혐오(xenophobia)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프로토콜을 보충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2020.2.12검색

2) FATF는 1989년 마약거래 및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퇴치하기 위해 G-7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이용되는 금융거래를 퇴

UN 마약범죄사무국)가 주최하는 마약위원회 연례회의(CND), UNODC 산하의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의 결정과 의결 내용 등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및 범죄예방 정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형사절차 이행입법 마련이라는 현안을 대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국제협력 및 연구』는 ①국제적 현안에 대한 UN과의 기본적 협력을 필두로 ②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③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수행하여 왔다.

우선,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법령 및 조약을 제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갖추기 위해서는 UNODC 등 국제기구의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가이드라인삼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익하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하였으며,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CCPCJ) 연례회의와 총회 참가 및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윤정숙 외, 2019). 또한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회의³⁾, 유엔 마약위원회 연례회의(CND)⁴⁾, 유엔 사이버범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UN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meetings on Cybercrime)⁵⁾에 참석하는 등 인신매매, 자금세탁,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치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 190개 이상의 회원국이 FATF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세계 FATF 네트워크는 FATF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이행하고 평가받는 것을 임무로 한다.

<https://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general/documents/unscr-march-2019.html>. 2020.02.12. 검색

3)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OC Convention)에 가입한 당사국의 총회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올해로 제 10회 당사국 총회 개최

4) 매년 3월에 개최되는 UN 마약위원회 연례회의로 올해로 제 63차 회의 진행

5)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사이버범죄에 관한 UN 주도의 정부간 전문가회의로 올해로 제 6차 회의 진행

죄 등과 같이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된 UNODC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책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예: 사이버범죄, AI와 인공지능을 통한 범죄예방)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범죄예방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본 원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각 지역별로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하여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학술동향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해왔으며, 역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발전에 관하여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코자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의 관련 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미주지역에서는 2019년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의 학술적 협력 및 우호증진을 약속하였고 이후 제 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⁶⁾에서 워크숍의 공동 개최, 미국 범죄학대회의 공동세션 개최 등을 통해 이행방안을 실질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페루 법무부가 자국에 본 원과 같은 모델의 국가형사정책연구소(Peruvian National Institute of Criminology)를 건설할 목적으로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자문 및 기술 지원, 인력 교류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⁷⁾. 가장 최근에는 유엔중남미 범죄예방·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⁸⁾과의 향후 형사사법 분야의 자문, 인력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을 앞두고 있는 등⁹⁾ 아·태지역의 주도적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올해로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10년을 맞게 되는 독일범죄예방재단(DPT)과의 지속적 교류¹⁰⁾를 필두로 세계 3대 범죄학대회로 불리는 스톡홀름 범죄학 대회에 독자세션을 열어 꾸준히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주요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6) UN주도하에 5년마다 열리는 형사사법 분야의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제 14차 총회는 2021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

7) 단,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과 페루의 국내 정치적 상황(총리 탄핵, 내각 전원 교체 등)의 혼란으로 페루 법무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8) 코스타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형사사법 연구기관으로 UNPNI 기관임

9) 단, MOU논의가 2019년 말에 시작되어 코로나 발발 이전에 제 14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서도 MOU 체결을 위한 기관장 간, 실무자간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총회의 연기 및 온라인 개최로 관련 논의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0) 본 원은 DPT와 MOU를 체결한 이후로 독일범죄예방대회(DPT가 주최하는 연례 학술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이어 오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형사사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 그동안 지역적 교류를 가장 많이 추진해온 지역이다. 본 원은 가장 최근인 2019년 기준으로도 태국 판사단, 대만 법무부, 일본의 우수 대학 등과 한국의 형사사법 일반, 전자감독제도, 아동성범죄에 대응 등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수회 개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04년 본 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VFAC)』¹¹⁾, 『아시아저스트(Asia Just)』¹²⁾, 동북아포럼¹³⁾ 등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지역과의 교류 역시 강화해 오고 있다.

한편, 본 원은 이러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높아진 해외 위상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각국의 실무가와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반부패나 테러 등의 초국가적 범죄, 형사사법에서의 인권, 사법접근권 강화와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포럼(KIC International Forum)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4년~15년에는 테러를 주제로, 2016년에는 사이버 범죄를 주제로, 2017년에는 UNPNI 추계조정회의와 동시에 UN SDGs(UN 지속개발가능목표)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및 『국민안전을 위한 증거기반의 형사정책』의 대주제로 상·하반기에 각각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제 7회인 올해의 학술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범죄의 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자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¹⁴⁾.

이 밖에도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형사정책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의 장(forum)을

-
- 11) UNODC와의 협력 사업으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개도국 실무자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12) 태국 방콕에 소재하는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법무부 대검찰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초국가적 범죄 대응 강화' 등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형사사법 실무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설계된 프로그램. 현지에 파견된 대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Liaison 역할을 수행
 - 13) 중국 동북아지역의 3성(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에서 활동하는 현지의 형사사법학자,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한국 형사사법의 전파를 목적으로 기획된 포럼으로 2018년까지 4회 개최
 - 14) 제 7회 국제학술포럼은 온라인 방식으로 12월 2일, 3일 양일에 걸쳐 기초세션 및 4개의 세션(사이버범죄 개관, 사이버 경제범죄, 사이버 보안, 사이버성범죄)으로 구성되어 개최된다.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를 창간하고, 세계 유수의 범죄학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으며, 형사정책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해외유명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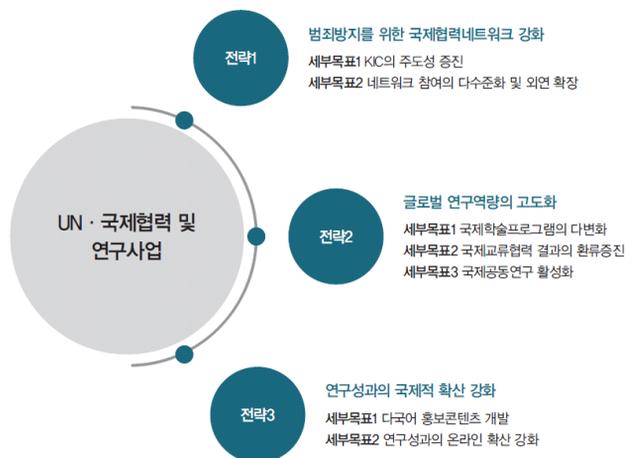
제2절 |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1.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UN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속적,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본 사업은 2018년에 2022년까지 5개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설정하여 연도별 목표 및 전략방법을 설정한 바 있다. 2019년도 7월말 국제협력센터에서 국제협력실로 조직이 확대 재편되고 국제협력실 내 영문저널 창간을 비롯, 신규 학술사업추진을 위한 국제학술팀이 새로이 편성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종래에 설정한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소폭 수정하여 중장기전략을 재수립하였다.

▶▶ [그림 1-2-1] 국제협력실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본 사업의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2.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첫 번째 전략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UNODC/UNPNI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별 해외 사법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원은 이미 UNODC 산하의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및 위원회(CCPC) 연례회의에서 다수의 워크숍과 부속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는 18개의 UNPNI(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가 참여하는 추계조정회의의 개최국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제 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2021년 3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에 예정된 4개의 본회의 워크숍 중, 워크숍 4의 주관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국제회의에서의 참여 주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UNODC와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UNPNI와 교류 확대 등을 위한 공동 연구,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동아시아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 각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준으로 높이고 외연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별 국제협력이 사법기관과 학계를 위주로 이뤄진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형사사법 개혁과 시민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민간기업 전문가 등 다수준의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전략 하에 [세부목표 1: KIC의 주도성 증진]과 [세부목표 2: 네트워크 참여의 다수준화 및 외연 확장]을 하위에 설정하여 이행 방식을 점검하고 있다.

» [표 1-2-1] 전략 1의 연도별 세부 목표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주도성 증진 - UNODC/UNPNI 워크숍 기획 - UNODC/UNPNI 공동 연구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주도성 증진 - UNODC/UNPNI 워크숍 진행 - UNODC/UNPNI 공동 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주도성 증진 - UNODC/UNPNI 워크숍 진행 - UNODC/UNPNI 공동연구 진행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장 - 각 지역별 네트워크 강화 - 기존 지역네트워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장 - 아태지역 네트워크 확장 I -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장 I - 제 3세계, 저개발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장 - 아태지역 네트워크 확장 II -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장 II - 제 3세계, 저개발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인력참여의 다수준화 - 각 지역별 인력교류지속 - 기존 교류인력 분석/개선 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인력참여의 다수준화 - 정책분야, 민간기업, 시민 단체 참여 증진 - 현장 전문가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인력참여의 다수준화 - 정책분야, 민간기업, 시민단체 참여 증진 - 현장 전문가 참여 증진

3.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최신 연구 결과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세부목표 1: 국제학술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세부목표 2: 국제교류협력 결과의 환류증진] 그리고 [세부목표 3: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하위에 설정하였다.

그동안 본원에서는 국제적 학술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KIC 국제학술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유수의 형사사법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다변화된 국제학술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학술대회보다 더 상시적이고 기록적 가치가 있는 학술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9년에 영문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를 창간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본원은 올 한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가면서 사이버범죄와 같은

비대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에 집중하여,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표적 초국가적 범죄인 마약범죄의 경로가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의 봉쇄령 등으로 더욱 음성화되고 폐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마약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특히 올 한해 진행된 2개의 국제공동연구는 본 원이 MOU를 맺은 기관인 재미한인범죄학회, UNODC 동남아태지역사무소와 함께 추진하므로써,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MOU가 실질화될 수 있고 학술 인력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제학술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것은 해외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계, 실무자와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본원의 구성원들의 학문적 안목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연구 활동에 활용하는 등 지식의 환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영향으로 몇 개의 주요한 국제학술대회가 취소되어 현장에서의 인적교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 저널의 지속적 발간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웹 세미나, 온라인 기반의 교류 등을 향후 확대하여 본원의 인력들이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결과의 환류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 [표 1-2-2] 전략 2의 연도별 세부 목표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전략 2: 글로벌 연구 역량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프로그램 다변화 - 국제학술저널 창간 - 국제학술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프로그램 다변화 - 국제학술저널 연 2회 발간 - 국제학술포럼 개최 -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프로그램 다변화 - 국제학술저널 연 3회 발간 - 국제학술포럼 개최 - VFAC 개편사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결과 환류증진 - 국제학술대회 인력교류 - 국제학술저널로 결과환류 - 국제학술프로그램 원내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결과 환류증진 - 국제학술대회 인력교류 - 국제학술저널로 결과환류 - 국제학술프로그램 원내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결과 환류증진 - 국제학술대회 인력교류 - 국제학술저널로 결과환류 - 국제학술프로그램 원내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증진 - 호주국립대학(ANU) - 캐나다 몬트리올 비교범죄연구소(시와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증진 -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사이버범죄) - UNODC 동남아사무소(마약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증진 - 재미한인범죄학회(팬데믹과 범죄) - 중국, 일본 연구기관(동북아시아 형사사법공조 방안)

4.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세 번째 전략으로는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본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의 영문 번역물을 초록집이나 브리프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왔다. 2019년부터는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더욱 다양화하기 위한 방식들을 고민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성과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발간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영문홍보콘텐츠 개발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 성과의 온라인 확산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전략 3: 연구 성과 확산의 국제적 확산 강화]로 명명하고 [세부목표 1: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 강화]과 [세부목표 2: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를 하위에 설정하였다.

» [표 1-2-3] 전략 3의 연도별 세부 목표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강화 - KIC Research Reports (30주년 기념, 종결)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 KIC Research Brief (2019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강화 - Trends and Polices in Criminal Justice 창간 및 발행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지속발간 - 온라인 성과확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강화 - Trends and Polices in Criminal Justice 지속 발행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지속발간 - 온라인 성과확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 -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 SNS Channel 강화 - KIC Newsletter 확대 - 기존 홈페이지 운영방식 분석/개선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개편 - SNS Channel 강화 - KIC Newsletter 확대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 - 신규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모니터링 - SNS Channel 강화 - KIC Newsletter 확대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제3절 | 전략별 사업추진에 대한 팀별 분장

제 1장에서 선술한 5개년 중장기 전략과 세부전략을 반영하여 2020년도 각 전략별 주요 사업의 주관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세부사업에 대한 주관팀은 원칙적으로 국제관계팀에서 맡아서 추진하였다. 국제관계팀은 국제형사정책동향을 분석하고, 본원과 타 기관과의 양자간, 다자간 방식의 모든 지역적 협력을 맡고 있으며 본원의 방원행사, 학술협력행사 혹은 본원의 타 기관 인력파견 등을 주관하였다. 또한 UNODC를 포함 해외 사법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진행을 맡고 있다.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의 세부사업에 대한 주관팀은 원칙적으로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국제학술팀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해외의 국제학술대회의 방원단 파견 및 프로그램 구성, 영문저널발간, 해외 학술단체와의 국제공동연구 진행 등 본원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다만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나 미국범죄학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 파견은 연사섭외나 방원단 파견 등에 있어 해당지역과의 국제협력도 중시해야하는 만큼, 주관은 국제학술팀이 하되 국제관계팀이 협조팀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의 전면 개편은 종래 본 사업이 UNODC와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국제관계팀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년도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방식으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학술대회가 사실상 취소됨에 따라 별도의 KIC 세션과 방원단 구성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원이 주최하는 온라인 방식의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에 연사섭외와 행사진행은 국제관계팀이,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학술팀이 맡아 진행하였다.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는 연구 성과의 번역, 편찬물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하는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다국어홈페이지의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되 국제관계팀을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국제협력부분과 학술적 성과부분이 종합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 [표 1-3-1] 국제협력실 내 팀별 업무 분장

사업영역	세부사업	주관팀
I. 글로벌 연구능력 고도화	1. 국제공동연구 - 재미한인범죄학회/KIC: 사이버범죄 분류 및 측정	국제 학술팀
	2. VFAC 개편사업 - 사업의 전면적 개편	국제 관계팀
	3. 영문저널 발행 - Volume 2(Issue 1, 2) 발행	국제 학술팀
	4. KIC International Forum - 2020 주제: Cyber Crime	국제 학술팀: 프로그램 구성 국제 관계팀: 프로그램 진행
	5. 국제학술대회 개최/참가 지원	국제 학술팀
II.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 국제공동연구 - UNODC/KIC: 마약범죄	국제 관계팀
	2. UNODC/UNPNI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제 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 CCPCJ/UNPNI 연례회의·춘추계조정회의	국제 관계팀
	3. 지역 네트워크 강화 - APECCJ(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연례 회의)	국제 관계팀
	4. 국제형사정책동향 분석 - UN/UNPNI 정책 분석	국제 관계팀
III. 연구성과 국제적 확산	1.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국제 학술팀: 학술 부분 등 국제관계팀: 네트워크 부분
	2. 영문 (비)정기 발간물 제작 및 배포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국제 학술팀
	3. 연구성과 온라인 확산 - KIC Newsletter - SNS(Facebook, Twitter, Youtube, etc)	국제 학술팀

제 2 장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주요사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윤 정 숙

제2장

주요사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제1절 | 주요 사업 추진 내용

금년도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사업은 사업의 총괄적 기획을 국제협력실장이 맡고 크게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국제관계팀과 국제학술팀에 배분하였다. 세부과제는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UN·국제협력과 관계된 사업은 국제관계팀에서, 국제학술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였다.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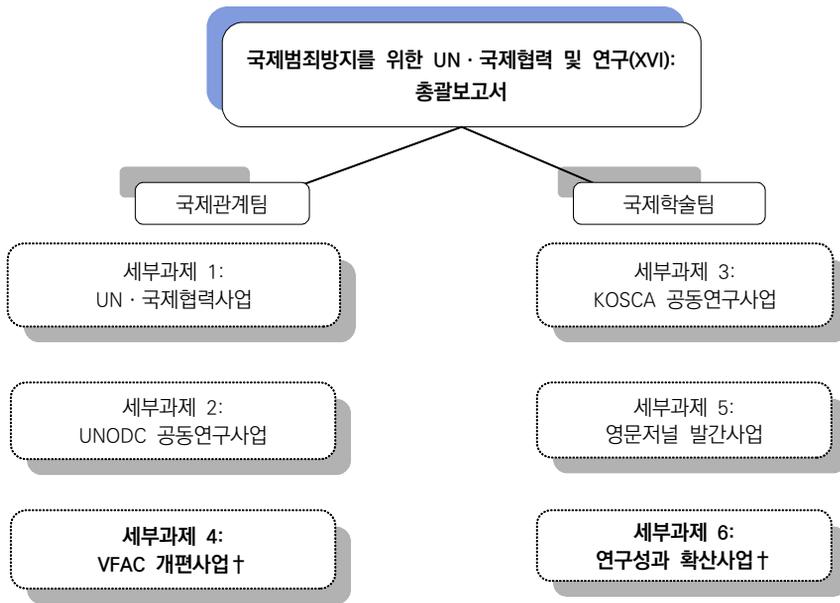
각 사업의 팀별 배분은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진척 과정에서는 개별 팀 안에서 종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있고 팀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팀 구성원 간, 그리고 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시켰다.

제 1장에서 선술한 국제사업의 세 가지 기본 전략과 기관장의 경영목표,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 4: VFAC 개편사업'과 '세부과제 6: 연구성과 확산사업'을 금년의 주력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주력사업은 종래에 지속해왔던 방식에서 전략과 사업의 내용을 크게 수정해야하거나, 사업의 결과물이 새롭게 제시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자원을 보다 집중해야하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UN·국제협력사업(세부과제 1)은 기존 사업의 연속적인 면이 크고 특히 금년에는 일부 국제회의가 연기 혹은 축소되었으며, 두 개의 공동연구사업(세부과제 2, 세부과제 3)은 파트너기관의 인력투입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영문저널 발간사업(세부과제 5)은 사실상 전년도 하반기에 추진되어 이미 창간 및 기획의 상당부분이 진척

2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부과제 4와 세부과제 6을 금년의 주력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주력사업에는 예산 배분과 기획력에서 우선 순위를 가하고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내부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 [그림 2-1-1]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사업의 구성현황



*주: 주력사업은 †표시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세부과제 1은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의 진행내용으로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 UN기구를 비롯한 각국의 범죄연구기관의 COVID-19 관련한 형사정책동향의 분석,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의 워크숍 기획 과정, 아·태지역의 UNPNI 3개 기관(본원, 호주형사정책연구원: AIC, 태국사법연구원: TIJ)과의 웹세미나 기획과정,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방원회의 기획 및 개최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과제 1에 보고하였다.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세부과제 2 역시 전략 1을 이행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으로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을 제목으로 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UNODC와의 국제협력력을 기초로 진행한 공동연구이다. 동남아시아 마약현황의 분석을 통해 지역 내 마약 수요 감축, 공급 감축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마약 공급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와 공동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세한 결과는 세부과제 2에 보고하였다.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전략 2: 글로벌 연구능력 고도화]에서는 3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VFAC 리뉴얼 사업,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세부과제 3은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를 제목으로 하여 그간 구축된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와의 학술교류를 발전시켜 미국의 사이버범죄 유형 및 분류체계 등 전반적 대응현황을 한국과 비교하는 연구이다. 사이버범죄 통계에 관해 미국과 한국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이버범죄 정의와 분류, 집계방식의 부적절성, 과소측정의 경향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연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부과제 3에 보고하였다.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세부과제 4는 VFAC 리뉴얼 사업으로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의 전면 개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이다. 그간의 VFAC 사업의 전개 과정을 세부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새로운 VFAC의 개편방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SWOT 분석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세부과제 4에 상세히 보고하였다.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 사업

세부과제 5인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은 2019년도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의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보고서이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의 기획 과정과 창간호 발간, 그리고 금년도에 발간되는 제 2권의 1, 2호를 발간하는 과정을 비롯, 향후 영문저널의 발전방안 및 해외의 홍보방안 등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6. 세부과제 6: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세부과제 6은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접촉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성과 확산 플랫폼 및 콘텐츠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주력 사업이기도 하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의 발간 및 확산 과정과, 영문 홈페이지의 전면적 개편 과정, 그리고 Twitter, Facebook, Youtube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강화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2절 | 사업 추진 방법

1. 문헌 연구

사업 추진 방법으로는 먼저, UNODC나 UNPNI기관, 주요 형사사법기관 등의 사법 통계, 협약,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COVID-19와 관련한 각국의 사법기관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국제형사정책동향』이라는 섹션을 통해 보고하였고, 그 결과를 국제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의 기획 등에 활용하였다.

2. 양해각서(MOU) 체결

양해각서(MOU) 체결은 당사국간의 국제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공식화, 체계화하기 위한 본 사업의 주요 추진 방법이다. 금년에는 COVID-19 상황으로 MOU체결 제의가 있었던 기관들과 동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코로나 상황이 차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년도에 온라인 방식의 MOU 체결 가능성 및 이를 기념하기 위한 워크숍 등, 온라인 상의 인적 교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 UN 국제회의 참가 및 워크숍 기획

국제관계팀에서는 UN 국제회의의 참가 및 워크숍 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다자간 협력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CCPCJ회의나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회의가 올 해 COVID-19 상황으로 취소 혹은 연기되었는 바, 특히 올해는 제 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참가를 위한 워크숍 기획에 집중하고 UNPNI 기관대상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적 동향을 모니터링 하였다.

4. 국제학술회의·세미나 기획 및 개최

국제학술회의·세미나 기획 및 개최도 국제 사업의 주요 실행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금년도에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현안을 주제로 KIC 국제학술포럼을 기획하였으며, 이 밖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PNI간의 학술협의체 기획, KIC 전문가 그룹회의 기획 등을 통해 다자간, 양자간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고 사법현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5.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제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외 우수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금년도는 재미한인범죄학회 연구공모를 통한 사이버범죄 주제의 국제공동연구와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협력사업을 통한 마약범죄 주제의 국제공동연구가 추진되었다.

6. 영문편찬물 발간 사업

국제학술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영문편찬물 발간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의 연 2회 발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영문판의 연례적 발간, KIC 정책연구요약보고서의 우수 연구를 선별한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의 월별 발간은 우수한 연구를 국제적으로 확산해가는 의미있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7.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마지막으로,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계정 운영, E-Newsletter(영문판)의 월별 발행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 3 장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윤정숙 · 강태경 · 조영오 · 심인식 · 김석범 · 이승진 · 나주원 ·
정세윤 · 강민정

제3장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제1절 |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요약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 목적

세부과제 1은 범죄방지를 위해 UN과의 협력과 아시아·태평양 등의 지역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추진 과정과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UN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과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우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사업 결과

1) 국제 형사정책 동향 분석

'2020년도 UNODC 연구·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와 마약·부패 및 초국가적 범죄 방지 관련 활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2020년 한해 UNODC는 ①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가 마약류 범죄 발생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고, ②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는 밀입국 비용과 밀입국 경로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고, ③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가 살인범죄의 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2020년 한해 UNODC는 ①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서 『아시아 내 합성마약: 최근 동향과 과제』 보고서와 『2020년 세계마약보고서』(World Drug Report)를 발간하였고, ② 부패 범죄 방지를 위해 '반부패 수사기관 독립성 제고 위한 주석서'와 '공공기관의 부패위험평가 및 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발간하였다.

'2020년도 UNPNI 연구·정책 동향'에서는,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이하 UNPNI) 인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 '태국사법연구원(TIJ)',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의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AIC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연구와 온라인 도박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RWI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정책에 있어서 인권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TIJ는 '교정시설 내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는 등 교정 관계 활동에 주력했다. UNICRI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격리 및 감시 기술 활용의 원칙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 UN/UNPNI 협력 네트워크

'2020년도 UN 교류협력'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KIC-UNODC 국제공동연구', 'PNI 온라인 회의 참가', 'KIC-TIJ 특별대담 개최'와 같은 UN/UNPNI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보았다.

첫째, '제14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와 관련해서는 제14차 총회 워크숍 중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워크숍4'의 준비 상황이 다루어졌다. 본원은 총회 의제6과 결부된 워크숍4의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UNODC 및 NIJ와 협력하여 워크숍4의 세부주제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둘째,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ODC ROSEAP) 국

제공동연구'는 'Evolution of illicit drug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its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need for reexamining current drug policies'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약류 거래 실태와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마약류 단속 및 처벌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셋째, 2020년도 PNI 조정회의(PNI Coordination Meeting)에서는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및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의 향후 일정계획이 발표되었고, PNI 회원기관 설문조사(PNI Survey)의 결과를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예방·형사사법 활동에 대해 PNI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이 강조되었다.

넷째, 'KIC-TIJ 특별대담 개최'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과 태국사법연구원의 키티퐁 키타야락(Kittipong Kittayarak) 원장 간 (화상)특별대담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대담을 통해서 TIJ 경영철학과 비전, 주요 성과,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비구금형 대안에 관한 방콕규칙」(The Bangkok Rules)의 제정 배경과 관련 활동 및 향후 양 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3) 지역별 국제교류협력

UN 이외의 지역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주요국 형사정책동향 분석'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국제적 범죄 및 형사사법 동향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총 4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개국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생건수가 증가한 범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살인, 특수·중폭행, 차량절도, 방화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불법적 고리대금이나 불법 추심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제 교류협력'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① '재미한인범죄학회'와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를 주제로 한 공동연구, ② '한국의 사법접근권 현황(The State of "Access to Justice" in South Korea)'을 주제로 리브 퇴레스(Liv Torres) 패스파인더 대표와 함께 한 '제1회 KIC전문가 그룹회의', ③ '스마

트 범죄예방- 디지털 시대의 범죄예방 (Smart Prevention- Prevention in the digital world)'을 주제로 한 '제25회 독일범죄예방대회(DPT)' 원격 참여, ④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Rectifying Past Wrongs and Remembrance Culture in Korea and Germany)'라는 주제로 한 한독공동학술대회 개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주한독일대사관 공동 개최) 등이 소개되었다.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에서는 아태지역 형사정책 분야 연구자 및 실무가의 교류협력 강화와 실질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기획·개최한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MOU체결 기관이자 PNI 기관으로서 활발한 교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거버넌스 대학, 태국사법연구원(TIJ) 및 국내유관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PSI)가 참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범죄 동향의 변화, 코로나19 대응 봉쇄조치로 인한 호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증가, 코로나19가 조직범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의 인권적 함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의 범죄 동향 변화가 다루어졌다.

'제7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개최'에서는 사이버 범죄 개관, 사이버 경제범죄,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성범죄를 주제로 구성된 4개 세션에 국내외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사이버범죄의 도전과 과제: 예방·공조·안전(Challenges of Cybercrime as Opportunities: Prevention, Cooperation and Safety)'의 프로그램과 준비 과정 등이 다뤄졌다.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가. 연구 목적

세부과제 2는 진화하는 동남아시아 마약시장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동남아시아 지역과 한국의 현 마약류 통제 정책과 형사사법체계를 검토하여 한국의

보다 더 실효적인 마약류 통제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마약류 밀수동향, 적발·압류량, 그리고 관련 법령에 기반한 문헌 연구와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의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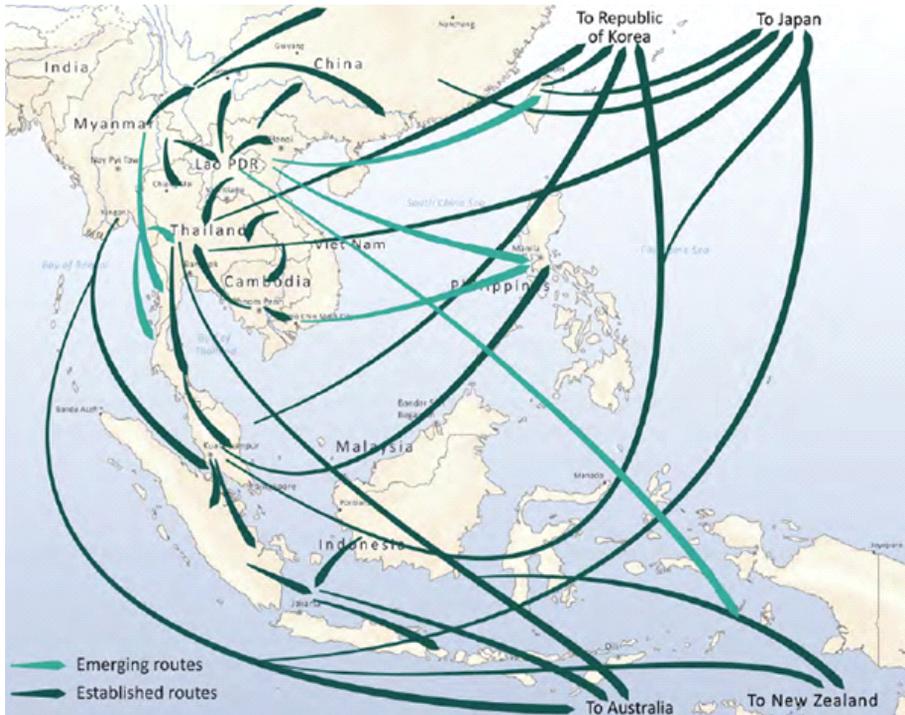
나. 연구 결과

연구 수행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에 집중되었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법 합성 마약 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동남아 마약시장과 한국 마약시장의 연계성을 입증하였다. 2015년부터 최근 수년간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 3개국이 국경을 접하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합성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여러 역내 국가 마약 시장에 합성 마약류의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불법 합성 마약류의 공급과잉 현상은 아세안 국가들의 공급 차단과 수요자 엄벌 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불법 마약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림 3-1-1) 참조).

둘째, 동남아 국가와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의 마약류 공급 차단 활동은 마약류 공급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마약 수요자에 대한 엄벌 조치는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경범죄자의 구금과 수용시설의 과밀화로 이어져 인권 침해,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높은 재범률 문제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동남아 및 한국 마약시장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할 때 동남아 국가의 실효적인 마약류 통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한국 정부가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아세안 국가의 마약류 퇴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 [그림 3-1-1] 2019년 기준 메스암페타민 밀수 경로의 변화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 활동의 사례로 ① UNODC가 주관한 마약류 통제에 관한 메콩강 접경국 간의 상호협정(Mek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② 유엔 마약위원회(CND)의 범죄추세 보고서 발간과 Good Practices Portal을 통한 실무경험 공유, ③ 세계보건기구(WHO)와 UNODC의 마약 오남용자 재활·치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연구는 향후 중요한 지원 분야로 전구물질 통제 체제의 강화, 아세안 국가 법집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구물질 통제 교육 훈련 제공을 강조하였다.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가. 연구 목적

사이버범죄 위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이버범죄 비용이 전세계적으로 2015년 3,000조에서 2021년까지 6,000조로 배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 내에

서도 인터넷 보급 확산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통신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공격 등 국가적인 위협에서부터 사이버성폭력(불법 촬영물,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 소지 등) 등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법집행기관이 인지하는 사이버범죄 발생과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모든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 위협은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절대적·상대적 빈도에 대한 일관된 측정수단 - 특히, 공식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국가 간 비교가능한 일관된 사이버범죄 측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경찰의 사이버범죄 분류 및 측정체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보다 적실성 있는 증거기반 예방활동 (evidence-based prevention)을 도모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공식통계 측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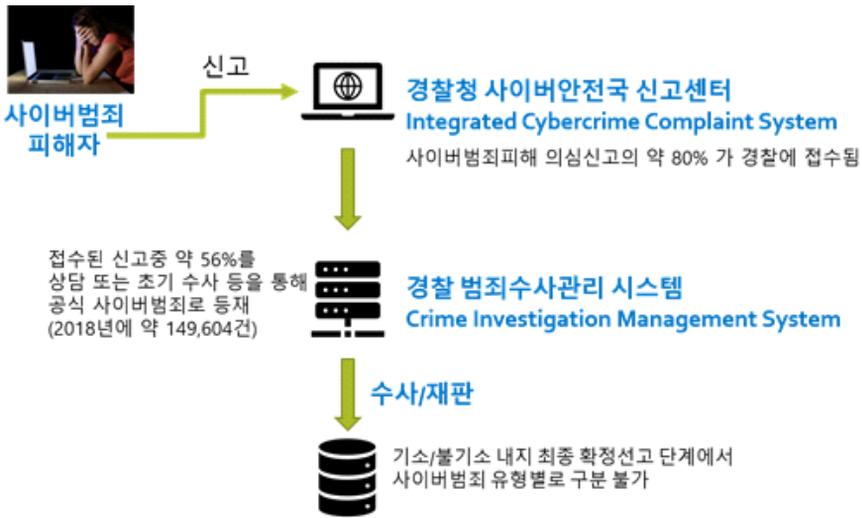
먼저, 한미 양국 공히 사이버범죄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한국은 유럽 평의회 또는 UNODC의 분류법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정보통신망 이용범죄·불법 콘텐츠 범죄’의 3개의 대범주로, 각각의 대범주하에서 세부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 등의 분류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NIBRS(National Incident Based Reporting System) 매뉴얼에 computer cri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이버범죄 또는 컴퓨터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학문적 관점에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컴퓨터 이용범죄’(computer-enabled crime: 사이버공간을 범죄 수법의 하나로 사용하는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범죄를 해킹 등 인터넷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범죄(컴퓨터 종속 범죄: computer-dependent crime)뿐 아니라, 인터넷 거래사기 등 컴퓨터 이용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한미 양국의 공식 사이버범죄 통계 수집 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국가경찰체제하에서 일원화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집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전체 사이버범죄의 80%가량이 접수되며(그림 3-1-2 참조), 2018년에는 접수된 신고의 56%만이 상담 등을 통해 공식 사이버범죄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의 상담 등의 결과에 따라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바, 이를 보완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그림 3-1-2] 한국 경찰의 사이버범죄통계 수집 체계 (ECRM)



미국의 경우에는 (그림 3-1-3 참조: 매사추세츠주), 사이버범죄(매뉴얼 상으로는 computer crime)는 주된 범죄 (substantive offense)와 동일한 죄명을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인 해킹과 계정도용 등은 '사기 범죄(Fraud Offenses)'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경찰과의 인터뷰결과 이러한 분류방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스톡커를 검거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NIBRS상 해당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없으며, 실령 범죄수법에서 범죄발생장소를 '가상공간 cyberspace'로 표기하더라도 이것이 사이버스토킹과 연계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이버스토킹 발생건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전체 법집행기관의 약 44%만 NIBRS 작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12%만 보고되고

있다는 FBI의 추정을 감안하면, 미국의 공식 사이버범죄 통계는 현실에 비해 과소측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3-1-3] 미국의 사이버범죄통계 수집 체계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사이버범죄의 공식통계는 FBI의 NIBRS와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 피해통계 외에는 연방차원의 별도 사이버범죄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IC3의 자료는 사이버공간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신고에 기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외에는 전반적인 사이버범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민간기업 등에서 사이버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건수를 추정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제시된 통계의 구체적 기준 및 자료는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정교한 사이버범죄 측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측정시스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절대적·상대적 빈도에 대한 일관된 측정수단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범죄의 정의 즉, ‘무엇이 사이버범죄’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조작을 수반하지 않는 인터넷 거래사기(전체 사이버범죄의 75%를 차지, 검거율은 79%)를 단순히 인터넷 이용만으로 사이버범죄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 사이버 도박과 인터넷 성인포르노는 합법인 경우가 많고,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어떤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타국가보다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킹에 대한 상이한 법규정 때문에 2018년 한국경찰의 해킹(전체 사이버범죄의 1.5%, 검거율 27%)에 대한 대응이 미국(매사추세츠州)(검거율 1.7%) 보다 낮다고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내적으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비교 가능한 기준 사이버 범죄(index cybercrime) 선정이 필요하다. 원래 기준 범죄(index crime)는 어느 한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에 널리 사용되는 범죄를 말하는 바 -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등- 사이버범죄도 그러한 기준범죄(index cybercrime)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그간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세밀한 통계를 수집해 온 한국이 기준 사이버범죄 선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사료된다.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가. 사업목적

본 사업은 ‘사이버범죄 방지 가상 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이하 ‘VFAC’이라 함) 사업의 기존 성과와 현재 운영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VFAC 사업의 리뉴얼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사업결과

1)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성과 검토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성과 검토’에서는, 지금까지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개발 단계’(2005-2009년), ‘발전 단계’(2010-2013년), ‘지속 단계’(2014-2019년)로 나누어 살펴보고, VFAC 사업의 리뉴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였다.

VFAC은 UNODC의 협력사업(2005~2009년)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범죄 관련 온라인 교육·훈련 및 리서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① 개발도상국가의 법집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온라인 교육 제공과 ②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연구자·실무가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VFAC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고, UNODC와의 협력사업 종료 후 2014년부터는 별도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급변하는 사이버범죄 환경 및 새로운 사이버범죄 수법 등에 관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없었다. 반면에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범죄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VFAC-Newsletter를 발행함으로써 리서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최소한도로 유지해오고 있다.

VFAC 사업의 리뉴얼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목표충증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국제협력사업의 목적, 예산, 목표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채택하기에 무리가 있다. ① 목표 충증을 일반인(내국인 포함)으로 확대하는 전략은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목표 충증 확대를 전제로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전략은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③ 목표 충증에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중심의 새로운 VFAC 사업을 시작하는 전략은 고비용이라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VFAC 사업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목표충증을 확대하는 방식의 리뉴얼은 적절하지 않다.

2)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SWOT 분석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SWOT 분석’에서는, VFAC 사업의 리뉴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SWOT 분석기법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리뉴얼 방향에 관한 네 가지 유형의 전략(SO, ST, WO, WT)을 도출하였다.

첫째, SWOT 분석은 조직의 내·외부 환경을 각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으로 파악하는 경영기법으로, 연구는 여러 SWOT 분석기법 중에서도 신속하고 수월한 환경분석과 능동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가능한 하인즈 웨이리치(Heinz Weirich)의 TOWS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SWOT 분석을 통해 VFAC 사업과 관련한 연구원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강점요인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영, 높은 학제간 연구수행 역량, 정부협조 및 추진동력 확보 용이,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파트너십 보유이다. 약점요인은 연구진행절차 상의 제약, 집권정부 또는 기관장 교체 시 사업의 지속성 약화, 경쟁기관 대비 사이버범죄 전문 연구 인력 부족, VFAC 정보제공방식의 제약이다. 기회요인은 국제적 사이버범죄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관련한 실무와 연구 협력의 수요 증대, UNODC 공동사업 기한 만료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플랫폼 구축 가능, 2021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될 제 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를 통한 홍보 기회이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인은 UNODC와의 공동사업 기한 만료로 인해 온라인 강의 수강생 확보와 홍보 난관, 사업의 주 대상이었던 개도국 관계기관의 사이버범죄 관심분야의 변화, 사이버범죄 양상 변화, 경쟁기관의 사이버범죄 온라인 교육 과정 제공이다.

▶▶ [표 3-1-1] TOWS 매트릭스 분석 - VFAC 사업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내부 환경</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외부 환경</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강점요인 (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₁: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 S₂: 학제간 연구수행 역량 • S₃: 정부협조 및 지원 용이 • S₄: 유엔 PNI 협력 	<p style="text-align: center;">약점요인 (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₁: 연구기간 · 예산 제약 • W₂: 집권정부/기관장 교체로 사업지속성 약화 • W₃: 사이버범죄 전문 연구인력 부족 • W₄: 콘텐츠 제공형식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기회요인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₁: 사이버범죄 국제적 실무 · 연구 협력 수요 증대 • O₂: TOC 범죄 국제적 실무 · 연구 협력 수요 증대 • O₃: 공동사업 기한 만료로 창의적인 플랫폼 구축 • O₄: 제14차 유엔 범죄 총회 개최 	<p style="text-align: center;">SO (강점-기회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PNI와의 사이버범죄 및 TOC 범죄 연구협력 (S₁, S₄, O₁, O₂, O₃, O₄) • 제14차 유엔 총회를 통한 국제협력 · 정보플랫폼 홍보 (S₄, O₄)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위협요인 (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₁: 공동사업 기한 만료로 독자 확보/홍보 난관 • T₂: 개도국의 사이버범죄 관심분야 변화 • T₃: 사이버범죄의 급속한 발전 양상 • T₄: 경쟁기관의 사이버범죄 수사 실무교육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ST (강점-위협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 지역 관심사에 특화된 유엔 PNI와의 연구협력 (S₂, S₄, T₁, T₂, T₃, T₄) • 사이버범죄 전문연구 인력 확보 (S₁, T₃) 	<p style="text-align: center;">WT (약점-위협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차 계획의 수립을 통한 연구사업의 제약 극복 (W₁, W₂, T₁, T₂, T₃, T₄)

이러한 내·외부 환경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음의 네 가지 리뉴얼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SO (강점-기회) 전략으로 유엔 PNI와의 사이버범죄 및 TOC 범죄 연구협력과 제14차 유엔 총회를 통한 국제협력 · 정보플랫폼 홍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ST (강점-위협) 전략으로 아태 지역 관심사에 특화된 유엔 PNI와의 연구협

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WO (약점-기회) 전략으로 다년차 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사업 지속성 확보와 VFAC 플랫폼 및 정보제공 형식의 변화를 통한 사이버범죄·TOC 수요 충족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WT (약점-위협) 전략으로 다년차 계획의 수립을 통한 연구사업의 제약 극복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정보플랫폼 프로젝트

‘정보플랫폼 프로젝트’에서는, VFAC 사업의 리뉴얼 전략으로 정보플랫폼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의의를 개관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법을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플랫폼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의의로는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형사사법 협력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제한적인 대면회의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 아래, VFAC 후속 사업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 전반에 있어서 학계와 실무계의 비대면 화상회의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APNAC (Asia Pacific Network against Crimes)’ 정보플랫폼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APNAC 정보플랫폼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연구 허브’(Asia Pacific Criminal Justice Research Hub)라는 중장기적 비전 아래 5대 초국가적 조직범죄인 ①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② 마약, ③ 부패, ④ 테러, ⑤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역내 전문가 간의 공동연구, 학술교류, 협력활동의 강화로,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주제로 정기연례 컨퍼런스(annual conferences) 및 비정기회의(small group meetings)를 개최하여 역내 학계 및 실무계 간의 학술교류확대를 목표로 한다.

둘째, ‘아태 형사사법 연구·법제 편람’(Asia Pacific Repository for Criminal Justice)은 5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①법제(legislation), ②판례(case law), ③ 2차 문헌(secondary sources), ④조사(surveys)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 역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아태 형사사법 제론’(Asia Pacific Topics in Criminal Justice)은 ①유엔 PNI

기관들을 포함한 주요 국내의 형사사법기관의 정책, 연구 동향 및 ②국내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기존 VFAC에 있는 사이버범죄 교육 강의와 문헌 자료를 이관하여 탑재한다.

VFAC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유엔 PNI와의 사이버범죄 및 TOC 범죄 관련 장기 연구협력’ 전략이 본 연구원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진 VFAC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주제 영역을 ‘사이버범죄 및 TOC(초국가적 조직 범죄)’로 확대하고, 목표정중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수정하고, 플랫폼의 기능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정 및 성과 등 전문 정보 제공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VFAC 사업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유엔 PNI로서의 본 연구원의 정체성과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 사업

가. 사업목적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간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는 형사정책분야의 영문학술저널로, 형사정책마련 및 법률안 제시과정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증거기반의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고, 나아가 국내외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나. 사업결과

2019년 창간 당시부터 학진 등재후보지 및 후보지 신청, SCOPUS/SSCI 등재지 신청 등 국내의 등재지로 성장하기 위해 5개년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건들에 부합될 수 있는 영문저널을 발간하기 위한 기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영문저널을 발간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영문저널 제작 배경, 영문 저널을 위한 내부조직의

구성여부, 운영방식(정기적인 발행 및 정규성, 정책 및 편집 등), 논문지원을 위한 온라인 전자논문시스템 존재여부(접근성), 출판과 심사 및 윤리 규칙사항(간행물 윤리 규정에 대한 게재 여부), peer review에 대한 운영방침, 총예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국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법학 및 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등 유관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논문의 운영을 뒷받침할 심사절차 및 심사규정, 투고규정, 출판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원 차원에서 기존 간행물출판과 관련된 원규를 개정하였다.

2019년도에 학술지명을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로 결정하고 이의 앞 글자를 인용하여 ijci@kic.re.kr이라는 영문저널용 이메일 계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Call for Papers의 내용을 확정하여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및 SNS에도 게재하고, 영문저널에 대한 leaflet를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영문저널에 대해 홍보하였다.

2019년 12월 영문저널 창간호는 1편의 초청글과 4편의 일반 논문을 실었다. 창간호 초청의 글로는 2019년 상반기에 개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유관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중 하나로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Criminal Justice and Human Dignity: A View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이다. 창간호를 위해서 해외에서 투고한 논문은 총 8편이었다. 투고논문은 심사절차에 의거하여, 전공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이 정해지고, 이들이 책임자로 선정한 3인의 심사자에게 각각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4편을 수록하여 12월 말에 출간되었다.

2020년에는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를 확립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편집위원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DB를 구축하여 논문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을 확장하고, 일부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심사논문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영문저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심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면 편집위원 확대 및 심사자 풀을 확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들과의 협업관계를 통해 점차적으로 인력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를 비롯해 국내·외 학교 및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사위원 DB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편집위원은 내년 개편에 맞추어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논문심사를 상시화하고, online first service 및 DOI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자와 저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보다 빨리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란 논문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후에 보다 시스템화 된 경우에는 이 번호를 통해 해당 논문 인용 횟수 및 참조 횟수 등의 다양한 통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문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인지도 및 저널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DOI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에 출간된 논문과 앞으로 출간될 논문에 DOI를 부여할 예정이다. 셋째, 논문 투고자, 심사자 및 심사 프로세스 진행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새롭게 개편될 영문 홈페이지에 저널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독립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인 6월 30일에 발간된 Volume 2 Issue 1에는 초청논문으로 2019년 국제포럼에서 ‘A Network Approach to Neighborhoods, Cities, and Crime Based on Everyday Urban Mobility’를 주제로 기초연설을 한 Robert Sampson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비롯해 일반 투고논문 4편을 게재했다.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Volume 2 Issue 2를 위한 초청논문으로는 2019년 국제포럼에서 ‘When You Hit a Fork in the Road, Take It: What the Latest Controversies and Data Tell Us About Our Field, Open Science, and the Way Forward’를 주제로 기초연설을 한 John Paul Wright 신시내티대학교 범죄학 교수의 논문을 비롯해 2편의 일반 투고논문에 대한 편집이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3편의 논문은 심사 중에 있다.

학술지 발간만큼이나 홍보가 중요하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영문 학술지를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e-newsletter, SNS등을 통해 학술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약 1600곳에 홍보를 하였다. 오프라인 홍보의 경우 행사정책연구와 행사정책연구소식에 Call for Papers를 게재하여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MOU 체결기관 약 700곳에 우편을 통해 홍보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우편발송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 유관기관의 경우 온라인 홍보를 보다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국제협력실의 주력 사업으로 영문홈페이지를 개편 중이기 때문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상기된 바와 같이 영문저널에 대한 메뉴를 신설해서 영문저널에 대한 홍보 및 책으로 발간되기 전 온라인상에 먼저 게재할 수 있도록 online first를 시행함으로써 영문저널 메뉴 상에서도 현재 완성된 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와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영문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범죄 및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6. 세부과제 6: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가. 사업 목적

본 세부과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본원에서 영문으로 발간되는 연구 성과물 및 그 외 간행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연구 성과물 확산 및 홍보가 보다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확산과 홍보의 주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연구원 다국어홈페이지를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나. 사업 결과

1) 연구 성과물의 확산

연구 성과물과 관련하여서는 총 5종류의 간행물이 올해 제작되었다. 첫 번째 간행물인 'Evolution of the illicit drug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its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Need for reexamining current drug policies'은 본원이 UNODC 동남아시아사무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구체적 연구내용은 세부과제 2에 보고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종료 되는대로 연구총서로 발간하여 본원의 홈페이지 등을 국내에 확산하는 한편, 연구 성과의 확산을 국제적으로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비롯, 공동 연구자인 UNODC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편찬물로 제작할 방침이다. UNODC의 홈페이지나, 안내 등을 통해 본 연구 보고서가 확산될 수 있다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마약 정책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실무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간행물인 'Comparative study on the metric of cybercrim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는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범죄관련 이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자세한 연구내용은 세부과제 3에 보고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가 종료 되는 대로 연구총서로 발간하여 국내에 확산하는 한편, 국제적 확산을 위해 특히 한미간 비교에 관심이 많은 재미한인범죄학회를 비롯, 미국범죄학회의 주제 발표, 제 7회 국제학술포럼의 주제 발표 등을 통해 확산 예정에 있다. 이 외에도 본원의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확산, SNS 채널을 통한 확산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간행물은 영문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이다. 올해에는 총 두 개의 issue가 출간될 예정으로 국내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확산처(정부기관, 학계 등 약 700여곳) 및 국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국외 확산의 경우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확산을 기본으로 저널 데이터베이스인 DBPia(디비피아)를 통한 검색 및 원문제공 등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네 번째 간행물은 '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로 2006년부터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내용 중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한 후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하고 있다. 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는 국내 본을 번역한 간행물로 별도의 국내 확산은 필요 없으며 영문 홈페이지, SNS, E-Newsletter를 등을 통한 국외 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간행물은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로 그동안 KIC Research in Brief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발간을 시작하였다. 본 간행물은 당해년도 보고서 중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보고서를 선별한 후 소논문 형태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매달 1편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No.007이 교정 및 편집 중에 있고 No.008은 번역 중에 있다. TPCJ는 새로운 간행물의 양식을 알리고자, 정부유관기관,

학계를 비롯 700여 곳 이상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MOU기관, 국제적 교류가 있었던 전문가, 학자, 실무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DB를 활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포하고 있다. 기존의 배포처를 모니터링하여 앞으로도 배포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간행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해외 홍보용 자료인 영문브로슈어와 KIC Newsletter가 있다. 영문브로슈어에는 연구원 설립목적을 비롯해서 원장의 비전과 목표, 연혁, 조직도, 연구 분야, 연구 네트워크, 세미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기관, 출판물 및 온라인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있었던 개원 30주년 학술회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KIC Newsletter의 경우 연구원에 대한 소식을 취합하여 온라인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에 배포되는 것으로 2016년에 시작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오프라인 배포에 제약이 있어 국외의 경우 온라인 배포를 보다 확대하였다.

» [표 3-1-2] 온·오프라인 배포처 현황

배포처		오프라인	온라인
국내	정부 유관기관 (법원, 검찰청, 정부부처 등)	510여개 기관	880계정
	학계 (법학과, 범죄학과 등)	45곳	275계정
	정부간행물판매센터	20곳	-
	원내 (개인 연구자 및 직원)	100인	100계정
국외	PNI/ MOU 기관 (미국 NIJ 등 42기관)	11개 기관	105계정
	학계 (교류가 있었던 학자)	-	40계정
	VFAC 관계자 (학계, 실무 등)	-	163계정
	기타 (방원기관 및 관심자 등)	-	38계정
계		약 700여 개	약 1600계정

2)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연구 성과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올해 주력사업 중의 하나로 온라인을 통한 확산 및 홍보의 플랫폼이 되는 다국어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중이다. 본 원은 2009년에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2016년에 중문홈페이지를 구축한 이래 부분적인 업데이트는 해왔으나 전면개편은 진행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현재 다국어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화하는 웹 트렌드 및 웹 환경에 뒤쳐져있으며 무엇보다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지적되어 왔다.

다국어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전에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토대로 현재 다국어 홈페이지를 ‘접근성’, ‘콘텐츠’, ‘디자인’, ‘상호작용성’, ‘연결성’, ‘소프트웨어측면’ 등 총 6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기초로 새롭게 개편될 다국어홈페이지의 핵심가치를 ‘공유와 소통’으로 정하였고, ‘편리성 제고’, ‘다국어홈페이지의 콘텐츠 고도화’, ‘홈페이지 콘텐츠의 전문성 증대’, ‘홈페이지의 확산기능 보강’, ‘다국어홈페이지를 둘러싼 모니터링시스템 신설’, ‘홈페이지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개편사업의 목표로 정하였다. 다국어홈페이지의 세부적인 추진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3-1-4] 다국어홈페이지 추진 전략



위에 제시된 추진 전략에 기초해서 향후 개선될 기능을 정하였다. 사용자와 관련하여서는 편의성, 트렌디한 디자인, 반응형 웹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고,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연구물 및 저자에 대한 DB구축과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소셜플랫폼의 연계, 이용 속도 개선, 모니터링 기능, 웹접근성 및 보안을 고려하여 개편하고자 한다. 향후 개선될 기능사항은 아래와 같다.

▶▶▶ [그림 3-1-5] 홈페이지 개편시 기능개선사항

사용자	타겟 분석	-이용자 타겟 분석
	디자인	-디자인 트렌드 고려하여 메인 컨셉 -디자인 컬러 아이덴티티 -정보구조
	UI&UX	-사용자 편의성 및 경험(UX/UI) -인포그래픽
	웹반응형	-반응형 웹 구축
콘텐츠	연구물·저자 DB	-기존 콘텐츠 재편성 및 콘텐츠간 연계 -연구물 콘텐츠와 저자정보 연계 -멀티미디어 콘텐츠(영상보고서 등) 제작 -국제컨퍼런스 등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자동추천 인덱싱 검색기능
	콘텐츠 고도화 연계 강화	
기능	서비스	-소셜플랫폼으로의 연계 서비스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서비스 -뉴스레터 참여 유도
	관리자	-홈페이지 로딩 속도 개선 -모니터링시스템을 위한 이용자 통계 기능 구축 -웹 에디터 규칙성 구축 -웹접근성 및 호환성, 보안지침 등 준수

현재 Plan-Do-See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순차적으로 다국어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진행 중이다. Plan 단계인 2020년 1월에서 4월까지 관련자료 검토, 유관기관 홈페이지 벤치마킹, 이용자의 요구사항 분석, 환경분석,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Do 단계인 5월부터 11월까지 다국어홈페이지 방향설정, 업체 선정, 홈페이지 프로토타입, 기능설계, UX/UI 설계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업무 및 UI 등의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 See 단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다국어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거친 후 개편사항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다국어홈페이지 개편으로 이용자 중심의 메뉴구성 및 디자인, 콘텐츠 업로딩, UI/UX 개선을 통해 해외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한 웹접근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으로 인해 상시 소통하는 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제별, 연도별, 저자별 검색기능과 태깅 기술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연구원 각자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성과물이 이번 다국어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르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제2절 | 전략별 주요 사업의 성과

1.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가. 국제 형사정책동향의 문헌 분석과 국제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2020년 한해 UNODC의 업무는 주제별로 크게 ①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사태의 영향과 전망 ② 마약 ③초국가적 조직범죄(인신매매·불법이민·테러·부패·여성 및 아동 폭력·사이버범죄 및 기타범죄) 등으로 분류되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UNODC를 비롯한 해외의 주요 사법기관 및 연구기관의 주요 게시물, 관련 브리핑자료, 발간물 등을 요약·정리한 국제 형사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한 국제적 의제들이 본 사업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UNODC는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에서 마약생산, 밀거래, 남용의 추세를 살피고, 국경의 단속강화로 마약 공급에 있어 육로 대신 해로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제 63차 유엔마약위원회(CND)의 결의안에서는 세계마약문 제에 대한 증거기반의 대응 강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강조하였고 최근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마약 보고서에서 아시아내 합성마약의 폭발적 증가를 발표하였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 속에 이러한 지역적 추세를 반영하여 UNODC 동남아태사무소와의 공동연구인 '동남아 마약정책의 현황과 한국의 발전방안'을 추진하여 관련 연구결과가 한국의 마약정책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UNODC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을 위해 특히, 팬데믹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폭력을 주목하였다. 특히 UNODC는 태국 방콕에서 제 1차 ASEAN 온라인 아동보호 지역회의를 주최하였는데, 동 회의에서 2017년 작성된 유니세프의 [세계아동현황보고서]를 소개하고 매년 7만5천명의 성인이 온라인 상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 접근한다는 추정치를 환기시키며 회원국들에게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가별 입법의 필요성과 회원국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제동향을 반영하여 본 사업은 국제학술포럼의 대주제 [사이버 범죄]내에서 주제 세션 중 하나로 '사이버성범죄'를 편성하여 유럽, 미국, 한국의 사이버성범죄 현황 및 수사, 법집행기관의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UNPNI의 연구동향에서는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의 가정폭력 가해자연구 출간과 파트너 살인범죄 연구 결과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본 사업은 9월에 개최한 제 1회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회의(APECCJ)에서 호주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 실태』의 연구결과를 주제 발표와 토론의 형식으로 초빙하여 국내외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스웨덴의 UNPNI기관인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 연구소(RWI)는 인권기반 코로나 대응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소외계층보호를 위한 보편성과 비차별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PNI기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역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개인의 사회활동 축소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면서 기술 활용시 데이터 익명화, 개인정보의 목적 제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원은 제 1회 KIC Expert Group Meeting(상세한 내용은 세부과제 1 보고서 참조)에서 방한한 Pathfinders의 대표와 함께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불거진 확진자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제 1회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회의(APECC)에서도 코로나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방역의 강화로 빚어진 인권침해의 소지 등을 논의하는 발표를 구성하여 코로나 방역과 인권보호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나. 국제적 현안을 반영한 UN 협력사업 주도적 전개

국제협력실은 국제적 현안을 반영한 유엔 사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서 개최될 워크숍 4 ‘현재 범죄추세, 최근 동향 및 새로운 대응방안, 특히 범죄악용 및 예방수단으로서의 기술 (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을 기획하고 있다.

내년으로 연기된 본 워크숍에서는 6가지 신종 범죄 ①암호화폐 ②다크웹상의 불법 화기거래 ③불법마약거래 ④인신매매 ⑤아동착취 및 학대 ⑥불법이주에 있어서의 기술의 불법적 사용과 이를 퇴치하기 위한 신기술의 활용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그동안 국제협력실은 계획안 발표, 워크숍 배경문서 작성 등을 거쳐, 총 3개의 세부세션으로 구성된 주제별 안을 바탕으로 공동개최자인 UNODC, NIJ와 패널리스트의 섭외를 진행해 왔다(상세내용은 세부과제 1참조).

현재까지 기획된 안을 보면 세션 1이 ‘암호화폐, 다크넷 시장, 불법화기’, 세션 2가 ‘인신매매, 불법이주, 아동착취 및 학대’, 세션 3이 ‘인공지능과 로봇, 윤리적 고려사항,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다루고 있는 바, 초국가적 주요 범죄에서 가장 뜨거운 국제적 현안 중 하나인 기술의 범죄악용과 예방수단으로서의 기술 활용의 2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으면서 각국의 학계, 정부기관, 민간기업의 전문가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워크숍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3월 교토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게 될 제 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는 현재, 3개 세션의 패널리스트 섭외를 거의 마친 상태이며 개최와 관련한 세부적, 기술적 요소들을 UNODC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본 총회에서 연구원은 NIJ, UNAFEI와 함께 ‘현실에서의 형사사법연구’를 주제로 학술부대행사(side event)를 공동개최하고, 이에 대한 주제발표로 한국 성범죄

자의 교정치료 효과성연구 수행에 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다.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식 설정 및 브랜드화

한편, 국제협력실은 본 기관과 해외기관의 양자간 교류협력에 있어 연속적이고도 기록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참여인력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회의 개최 방법을 고심해 왔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협력의 매우 중요한 축이 되어왔던 종래의 해외기관 방원행사를 [KIC Expert Group Meeting]으로 브랜드화였다. KIC Expert Group Meeting(KIC EGM)은 해외의 기관들이 방원할 때 한국의 형사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원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원단과 워크숍 혹은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Roundtable discussion)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기획되었다.

이러한 브랜드화는 방원행사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의 전문가들이 만나 현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관련 회의 결과를 기록하여 멀티미디어 형태로 공유하는 등 축적된 데이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 상반기에는 뉴욕 소재의 민관협력단체 Pathfinders의 퇴비스 대표가 방한하여 제 1회 KIC Expert Group Meeting(상세한 내용은 세부과제 1 보고서 참조)을 개최하였다. 이번 방한에서 Pathfinders의 퇴비스 대표는 한국의 사법접근권과 팬데믹 상황에서 이의 영향, 팬데믹 상황에서 범죄 동향 변화, 팬데믹 상황에서 불거진 인권문제 등에 관해 관련 연구진과의 논의를 가졌으며 방한을 계기로 향후 상호기관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세미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UNPNI를 중심으로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APECCJ: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전문가회의]를 기획하였다.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회의의 참여 대상기관으로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미국, 태국의 UNPNI가 참여에 검토되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방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시차 등을 고려한 AIC, TIJ와 본원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기획하였고 향후 대상국을 넓혀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회의는 ‘코비드19 팬데믹이 던져준 형사정책적 과제: 범죄환경 및 동향의 변화(Tasks in Criminal Policy amid the COVID-19 Pandemic: Evolving Trends in a Changing Landscape)’로 9월에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한 변화가 범죄환경과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범죄 동향 변화 예측과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2.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가. 신종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다양한 학술사업 전개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범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히,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국제협력실은 신종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다양한 학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주요 성과를 3가지 정도로 요약하러 한다.

첫째로 본 사업은 재미한인범죄학회와 사이버범죄의 측정체계 개선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성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디지털 증거확보와 경찰의 수사역량 등 대응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진행된 연구를 보면 사이버범죄통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한국과 미국의 공식범죄통계 등을 소개하고 보완해야할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범죄 통계에 관한 미국의 수치 등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 현직검사 출신이자 교수를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여 미국 연방 및 메사추세츠 주의 경찰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분류방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상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 범죄 집계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실무가가 참여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자세한 세부내용은 세부과제 3 참조).

둘째로 UNODC와의 협력사업으로 출발한 사이버범죄 방지 가상포럼(VFAC)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개발을 시작하여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VFAC은

지난 10여년 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종 사이버범죄를 포함 초국가적 조직 범죄(TOC)의 추세 및 관련 규제, 수사기술 등 최신 연구 및 실무기법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정보플랫폼으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까지 운영된 VFAC 사업의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특히 SWOT 분석을 도입하여 사업의 대상 및 목적, 리뉴얼된 콘텐츠 형식, 파트너십 설정의 세 가지 쟁점이 VFAC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세부내용은 세부과제 IV 참조).

셋째로, 올 해로 제 7회를 맞는 국제학술포럼의 개최를 통해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논의를 추진하였다. 특히, 세부주제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미국 범죄학회(ASC) 사이버범죄 분과장, 재미한인범죄학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마르코 쿠나푸(Markko Künnapu) 前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위원회 의장과 토마스 홀트(Thomas J. Holt)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섭외하고 유수의 국내외 학자 및 실무가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국제적 학술지 발간 및 온라인 플랫폼 추진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창간한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는 금년도 2회의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제 2권 제 2호의 발간까지 완료되었다. 제2권에서는 특별 초청 원고로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였던 세계적인 범죄학자 하버드 대학교의 Robert Sampson 교수와 신시내티 대학교의 John Paul Wright 교수가 참여함으로써 저널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 주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명한 학자들의 기조강연이 저널의 초청 원고로 추진되는 등 국제적 학술교류가 영문 저널의 지면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성과로는 영문학술지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논문심사 면에서 심사자의 D/B를 더욱 확대하고 논문의 상시접수 및 온라인퍼스트 서비스 기능을

정착시킬 것과 투고논문제출 및 심사, 수정논문 접수 및 최종 통보 등을 윈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영문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발간 시스템을 보다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적 출판업체인 Springer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세부과제 5 참조).

3. 전략 3: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가. 연구보고서의 소논문 형태 출간

Trends and Polices in Criminal Justice(TPCJ)는 올 한해 국제협력실이 영문저널의 발간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성과 확산 사업이다. 특히, TPCJ는 종래에 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초록 정도로만 영문 번역되어 연구의 본격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획된 소논문 형태의 발간물로 연구의 배경 및 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연구결과 제시에 그래프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현재 제 7호까지 발간된 TPCJ는 제 1호가 아동성범죄의 그루밍 연구, 제 2호가 청소년 집단의 사이버 도박연구, 제 3호가 공수처 연구 등으로 발행되었다(세부과제 6 참조). 당초 기획 시부터 각 호의 출판을 국내외의 현안과 맞춰서 발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올 한해 형사사법의 가장 큰 현안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유관기관 및 학계, 국외의 PNI 기관 및 방원기관, 주요 연구소 및 대학 등으로 온오프라인 배포를 진행 중이며 배포처의 DB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영문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 효율성 강화

영문 홈페이지의 개편은 금년도 성과확산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다. 국제협력실은 더욱 체계화되고 편리성이 증대된 영문 홈페이지로의 리뉴얼을 위해 수차례의 사업 회의를 통해 홈페이지의 새로운 메뉴탭을 구성하고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새로운 기능추가에 대해 가장 최적한 방법으로 구현할 전문 IT업체를 선정하여 메뉴를 개발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개편 목표를 편리성 제고, 콘텐츠 고도화, 전문성 증대, 확산기능 보강, 모니터링 기능 신설, 안정성 강화로 설정하여 구체적 실현방안을 탐색해 갔다. 먼저, 디자인 개편 및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그리드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체의 전면 개편, UI/UX기반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메인화면으로 전체적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이용자 데이터 피드백, GA를 활용한 메뉴별 접속통계기능 분석 등으로 영문홈페이지의 서비스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영문 홈페이지의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제별로 강화된 연구데이터의 관리’에 있다. 이를 위해 Topics 메뉴탭을 신설하여 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각종 학술행사를 주제별로 제시할 예정에 있다. Topics 기능 하에 모든 정보를 집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문 홈페이지의 외부 방문자들이 접속 시 가장 먼저 본원의 연구 주제를 탐색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에 따라 각 주제별로 자연스럽게 관련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시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학술정보의 세부 분류를 위해서 연구주제를 14개의 대분류와 21개의 중분류로 나누어 기초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향후 Publication 하에 제시되는 14개의 대분류 하에 연구보고서,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정보, 연구진의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연구 관련한 동영상 정보를 확대하여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다.

개편사업이 마무리 되는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영문홈페이지의 메뉴가 Topics, Publications, Networks, Events, About Us의 순으로 구성되고 전체 화면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을 하는 배너의 가시성이 더욱 보강될 뿐 아니라, 전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끼리의 태깅(Tagging)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접속 시간 대비 얻는 정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4 장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제언

윤 정 숙

제4장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제언

제1절 |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1.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 전년도 사업 문제점 반영 정도

전년도(2019)는 국제협력실이 새로이 개편되어 종래의 5개년(2018-2022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정하고 전략 및 세부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국제협력실의 사업 추진방향을 새로이 정비하는 시기였다. 금년도는 국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전년도의 정책제언과 개선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예정된 사업을 조금씩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새롭게 수립된 전략에 따라 국제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전년도에 제기된 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아래의 표는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초로 금년도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도 사업의 미흡한 점과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성과를 모니터링 했을 때,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제외한 UNODC 협력사업의 내실화방안, 글로벌 연구능력 고도화 개선방안, 연구성과 국제적 확산방안은 금년도에 비교적 차질없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UNODC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했다는 것과, 아태지역 형사사법 학술회의체(APECC)의 성공적 출범, 그리고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의 지속적 발간, 소논문 형태의 연구보고서 발간물 간행,

영문홈페이지 전면적 개편 등은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략적으로 보충해주었고 사업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표 4-1-1] 국제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I: 전년도 개선방안 반영정도

영역	2019년도 개선방안 및 문제점	2020년도 진행상황 점검
I. UNODC 협력사업의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ODC와 공동연구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UNODC 협력사업 주체인 파견 검찰의 Liaison역할에 한계 - 종래의 사업이 주로 행사성 사업에 중점 - 실질적인 공동연구로 내실화 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ODC와 공동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ODC 동남아태지역사무소와 '동남 아시아 마약정책의 현황과 한국의 발전방안' 주제의 공동연구 진행 - 양 기관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보고서 집필
	■ 모니터링 결과-(○): 2019년도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UNPNI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UNODC 주도하의 다자간 회의 참석 만으로는 실질적 협력 한계 - UNPNI기관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관들과 지역별 협력 확대 - 아태지역의 형사사법 의제에 대해 확장된 교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형사사법 회의(APECCJ)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NI기관 중 호주 의 AIC, 태국의 TIJ가 참여하는 형사사법회의체 출범 - [코로나와 범죄를 주제로 제 1회 아태 지역 형사사법 회의 개최 - 이후 아태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연례적 회의체 성격 유지
■ 모니터링 결과-(○): 2019년도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 진행		
II.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역내의 다양한 기관으로 외연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네트워크 구축에서 벗어나 종래의 네트워크를 기초로 외연 확장할 필요 - 교류인력의 다각화를 위해 핵심 인력을 존중하면서도 전공영역 다양화 - 참여인력을 고위급만이 아닌 실무자급을 동반하도록 네트워크 다수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Expert Group Meeting(EGM)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방문 목적에 맞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Roundtable discussion)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체로 출범 - 뉴욕기반의 Pathfinders 대표를 모시고 제 1회 EGM 개최 - 코로나 지속상황에서 접촉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 해 지속 전개가 힘들었음
	■ 모니터링 결과-(△) : 2019년도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 착수만 가능 코로나 상황 지속되고 있어 접촉성 교류 대폭 축소 2021년도의 경우 온라인 방식의 EGM 출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참여인력의 다수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형사사법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각종 현안에서 전문가와 실무자의 협조가 필수적 - UNODC 산하의 회의에 실무가 참여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ODC 제 14차 범죄예방 형사사법 총회(2021년도 개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설에서 실무(고검장급 검사) 참여 - 전체 패널리스트에서 실무가 참여비율 50% 이상 · 제 7회 KIC 국제포럼에서 실무가 참여 확대

영역	2019년도 개선방안 및 문제점	2020년도 진행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전문가 등 실무가 참여 확대 - KIC 학술포럼에 실무가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 실무가 및 민간단체 참여 확대
	<p>■ 모니터링 결과-(△): 2019년도 문제점을 2020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 코로나 상황 지속되고 있어 접촉성 교류 대폭 축소가 한계 온라인 회의에 실무가 참여 비중 확대 예정</p>	
<p>III. 글로벌 연구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저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학술팀 기능 강화 - 조직이나 인력 부족에서 오는 비연구적 저해요인 해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저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학술팀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실장 겸직에서 국제학술팀장의 별도인력 배치로 국제학술팀의 기능 강화 - 국제학술팀장의 부편집위원장 지정으로 영문저널 관련 업무 결정권 확대 - Managing Editor의 안정적 지원 강화
	<p>■ 모니터링 결과-(○): 2019년도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 진행</p>	
<p>IV. 연구사업의 국제적 성과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의 소논문 형태의 발간물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Research Reports의 단점으로 연구의 세부적 내용을 알기 힘들고 두께와 무게의 문제 개선 필요→ 종료 불가피 - KIC Research in Brief→ 연구의 세부적 내용을 알기 힘들→ 종료 필요 - 새로운 형태의 발간물 기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출간물을 종료하고 새롭게 TPCJ 기획하여 발행 - 소논문 형태로 연구 내용에 대해 구체적 파악 가능 - 각종 결과에 대한 표나 그림 제시 등 그래픽 기능 강화
	<p>■ 모니터링 결과-(○): 2019년도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의 온라인 확산 및 쌍방향적 지식 공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홈페이지의 온라인 확산 기능 한계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 SNS와의 연계 강화 -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 개선
	<p>■ 모니터링 결과-(○): 2019년도 문제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 사업 진행</p>	

그러나,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부분은 2019년도 문제점을 금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 교류가 쉽지 않은 측면에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자간 교류에서 KIC EGM(KIC 전문가 그룹회의)을 출범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 실질적 교류의 장이 축소된 까닭에 EGM의 지속가능성이나 향후 보완할 점등을 탐색할 만한 기회의 장이 제공되지 못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년도는 온라인 기반의 KIC EGM(KIC 전문가 그룹회의)을 개최하여 양자간, 다자간 교류가 지속되고 참여인

력이 다수준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반영정도

종래 국제사업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 등 해외 출장과 관련이 있었고 현지와의 인적교류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코로나로 인한 사업항목이나 예산의 일부 변경 등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

▶▶ [표 4-1-2] 국제협력실 성과 모니터링 II: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기준

사업영역	세부사업	코로나 영향 여부	사업 변경내용
I. 글로벌 연구능력 고도화	1. 국제공동연구 - 재미한인범죄학회/KIC: 사이버범죄 분류 및 측정	×	-
	2. VFAC 개편사업 - 사업의 전면적 개편	×	-
	3. 영문저널 발행 - Volume 2(Issue 1, 2) 발행	×	-
	4. KIC International Forum - 2020 주제: Cyber Crime	○	· 온라인 기반으로 변경
	5.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	· 미국 범죄학대회 취소 · 스톡홀름 범죄학대회 취소 · 아시아범죄학 대회 취소
II.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 국제공동연구 - UNODC/KIC: 마약범죄	×	-
	2. UNODC/UN PNI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제 14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 CCPCJ/UN PNI 연례회의·추추계 조정회의	○	· 14차 회의 2021년도로 연기(온라인 기반) · CCPCJ 연례회의는 취소
	3. 지역 네트워크 강화 - APECCJ(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연례회의)	○	· APECCJ회의 출범 · KIC EGM (전문가그룹회의) 출범 · MOU체결 계획 등 순연
	4. 국제형사정책동향 분석 - UN/UNPNI, 주요국 형사정책 동향	×	-

사업영역	세부사업	코로나 영향 여부	사업 변경내용
III. 연구성과 국제적 확산	1.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	-
	2. 영문 (비)정기 발간물 제작 및 배포 -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	-
	3. 연구성과 온라인 확산 - KIC Newsletter - SNS(Facebook, Twitter, Youtube, etc)	×	-

국제협력실 사업 항목들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전체 12개 사업 항목 중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받는 항목은 4개 정도였다.

먼저, 글로벌 연구역량 부분을 보면 종래 해외 연사들을 연구원으로 초청하여 진행되었던 대면접촉 기반의 연례 KIC 국제학술 포럼은 코로나의 영향을 다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올 해 개최되는 제 7회 KIC 국제포럼은 온라인 기반의 Virtual Conference 형식으로 개최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비록 웹상이기는 하지만 주요 전문가가 온라인 공간 상에 모여 학술적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어느 정도 학술적 성과는 이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패널리스트들과의 실질적 접촉을 통한 관계에서의 우호 증진 등은 웹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 부분은 다소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마찬가지로, 미국범죄학 대회, 스톡홀름 범죄학대회, 아시아범죄학 대회 등이 연달아 취소됨에 따라 연구원 전문가들의 국제학술대회의 참가가 취소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가장 컸던 부분이었다. 다행히 이들 대회의 취소여부가 연초 코로나 발발 이후에 바로 통보되어 사실상 관련 출장 예산을 낙후된 영문 홈페이지 개발에 전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된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선술한 전년도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같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부분이 외부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UNODC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의 경우 내년 3월로 순연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의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참가국들의

대면 참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기반의 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내년으로 모두 이월되어 편성될 예정이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서는 다행히 아·태지역 형사사법 회의를 출범시켜 온라인 기반의 전문가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한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금년도에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항목 12개중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으로 대면 기반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부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차년도 역시 코로나 19의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네트워크 구축부분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을 대비책으로 강구중에 있다. 또한 종래의 MOU기관이나 신규 MOU 체결을 계획했던 기관들과 함께 MOU 체결을 계기로 전문가그룹회의(EGM)이나 웨비나를 진행하여서 내실있는 교류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3.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I: 전략별 추진 정도

각 전략별로 세부전략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정도를 자체 모니터링해 보았다. 세부전략하의 목표사업에 대해 사업년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성과로 적고, 추진 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확인하는 것을 모니터링의 목표로 삼았다.

먼저,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을 보면, KIC 주도성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중 UNODC 총회의 워크숍 주최나 UNPNI와의 공동학술 부대행사는 사업의 기획이나 가담정도, 역할분담 면에서 그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UNODC와의 국제공동연구(세부과제 2)도 전년도 기획을 거쳐 금년도에 추진되었고 본 원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한국의 마약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이 성과로 평가된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과제에 있어서는 UNODC와의 공동연구를 확산하기 위해 UNODC의 채널 가용성 검토, 공동연구 결과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부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UNPNI 기관, 특히 MOU를 체결한 기관(예: AIC)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수행, MOU를 체결한 제 3세계나 저개발국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 [표 4-1-3] 전략 1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주도성 증진 - UNODC/UNPNI 워크숍 기획 - UNODC/UNPNI 공동연구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주도성 증진 - UNODC/UNPNI 워크숍 진행 - UNODC/UNPNI 공동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 주도성 증진 - UNODC/UNPNI 워크숍 진행 - UNODC/UNPNI 공동연구 진행 및 확산
	<p>■ 성과</p> <p>1. UNODC 총회 워크숍 주최, UNPNI 공동학술 부대행사(side event)진행 (2021년 예정)</p> <p>2. 2020년 UNODC 공동연구 수행 완료</p>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p>1. UNODC 공동연구 확산전략 수립 필요</p> <p>2. 2021년 UNPNI와의 공동연구 기획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장 - 각 지역별 네트워크강화 - 기존 지역네트워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장 - 아태지역 네트워크 확장 I -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장 I - 제 3세계, 저개발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장 - 아태지역 네트워크 확장 II -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장 II - 제 3세계, 저개발국 지원
	<p>■ 성과</p> <p>1. 아태지역 네트워크 확장: APECCJ(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회의) 출범과 회의 개최</p>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p>1. APECCJ 안정화를 위한 2021년도 연속 개최</p> <p>2.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장 전략 필요(예: 사이버범죄 관련)</p> <p>3. 제 3세계, 저개발국 지원 전략 필요(페루, 코스타리카 등 MOU 체결국가나 희망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인력참여의 다수준화 - 각 지역별 인력교류지속 - 기존 교류인력 분석/개선 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인력참여의 다수준화 - 정책분야, 민간기업, 시민단체 참여 증진 - 현장 전문가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인력참여의 다수준화 - 정책분야, 민간기업, 시민단체 참여 증진 - 현장 전문가 참여 증진
	<p>■ 성과</p> <p>1. 2018-19년도: 태국, 대만, 페루, 영국, ICC(국제형사재판소) 등의 방원시 사법기관의 전문가인 검사, 보호관찰관 등의 참여(연구원 파견인력 활용)로 정책분야에 대한 논의 활성화시키는 등 전문가 국제교류에 활용</p> <p>2. 2018-2020년도 국제포럼시 현장 전문가, 정책분야 전문가 참여 지속</p>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p>1. 방원의 대폭축소로 대면접촉 불가능하나, 온라인 방식의 회의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 참여 지속</p> <p>2. 현장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국제포럼 활용 지속</p>		

다음으로,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의 추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면, 국제학술프로그램의 다변화 영역에서는 국제학술저널을 창간하여 지속 발간하고 국제학술포럼을 지속 개최하며 VFAC의 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획안(APNAC, 세부과제 4 참조)을 완성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향후 추가과제로 국제학술저널인 IJCJ의 안정화 및 등재지 추진을 위한 증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년도에 년 2회의 정기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호를 기획하는 것으로 증간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호의 기획 방향으로는 세가지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1) 원내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KIC 특별호, 2) KIC와 MOU 기관(예: AIC, KOSCA 등)과의 공동 발간을 위한 특별호, 3) 특정 주제에 대한 해외 저명학자의 초청원고를 위주로 한 특별호.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편집위원회의 등을 거쳐 차년도 특별호의 기획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VFAC을 대체할 새로운 기획안인 APNAC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제도 지속되어야 한다. APN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국가적범죄 대처를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사업 추진체로 기획된 만큼, 관련 회의체의 안정적 가동, 학술연구의 지속적 발굴, 기타 DB기능의 실용화 등을 위해 세부추진항목들을 설정하여 관련 사업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행 방안을 점검하여 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술적 교류협력결과의 환류 증진 면에서는 전년도 국제학술포럼의 결과 중 특히 포럼 대주제와 가장 연관이 있었던 기초강연을 차년도 영문저널의 특별 원고로 초청하는 작업을 통해 국제학술포럼의 결과가 영문저널로 환류되도록 한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원내 인력의 영문저널 참가가 미흡하고, 대외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취소에 따라 인력교류가 중단되어 원내 인력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고도화시키는 데에 장애가 초래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대외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년도에는 온라인 기반의 전문가 회의를 가동하는 방법이나, 원내 인력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영문저널 KIC 특별호의 추진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 [표 4-1-4] 전략 2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전략 2: 글로벌 연구 역량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프로그램 다변화 - 국제학술저널 창간 - 국제학술포럼(KICIF)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프로그램 다변화 - 국제학술저널 연 2회 발간 - 국제학술포럼 (KICIF) 개최 -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VFAC)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프로그램 다변화 - 국제학술저널 연 3회 발간 - 국제학술포럼 (KICIF) 개최 - VFAC 개편안(APNAC)확산
	<p>■ 성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학술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창간 및 지속 발간 2. 국제학술포럼(KICIF) 지속 개최 3. VFAC 개편작업 추진 및 기획안 완성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JCJ의 안정화 및 등재지 추진을 위한 중간(연 3회 발행) 2. VFAC의 개편사업안(APNAC)에 대한 사업안정화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결과 환류증진 - 국제학술대회 인력교류 - 영문저널로 결과환류 - 국제학술프로그램 원내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결과 환류증진 - 국제학술대회 인력교류 - 영문저널 결과환류 - 국제학술프로그램 원내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결과 환류증진 - 국제학술대회 인력교류 - 영문저널 결과환류 - 국제학술프로그램 원내 참여 증진
	<p>■ 성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학술포럼 결과(기조강연)의 영문저널 초청원고 환류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학술대회(해외개최) 취소로 인력교류 미비→ 온라인 기반의 교류전략 필요 2. 영문저널, 국제학술대회(해외개최)의 원내 인력 참여 미흡으로 인한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증진 - 호주국립대학(ANU) - 캐나다 몬트리올 비교범죄 연구소(AI와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증진 - 재미한인범죄학회 (사이버범죄) - UNODC 동남아시아사무소 (마약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증진 - 재미한인범죄학회 (팬데믹과 범죄) - 중국, 일본 연구기관(동북 아시아 형사사법공조 방안) 	
<p>■ 성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NU, 캐나다 몬트리올 비교범죄연구소, KOSCA, UNODC 국제공동연구 완료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공동연구시 연구원 인력의 참여방안 증진 2. 차년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마지막으로 [전략 3: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살펴보겠다. 먼저, 종래의 영문발간물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점들을 과감하게 보완한 새

로운 영문발간물들의 기획과 편찬은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의 경우 금년도 4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월 1회씩 현재 7개호가 발행되었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가동하여 확산하고 있다. 연구원 보고서의 영문 브리프인 TPCJ에서는 정기 발간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 수요자의 학술적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발간물의 디자인 및 영문 번역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종래의 브리프보다 내용을 상세화하였다. 그러나, 브리프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용 역보고서(보고서의 국문 요약본)가 연구자별로 집필의 완성도와 수준 면에서 차이가 나서 영문판인 TPCJ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원내에 공유하고 집필 방식의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다국어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전보다 온라인과의 연계, 멀티미디어 기능이 보강되고, 디자인 면에서도 고도화된 다국어 홈페이지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다.

문제점으로는 홈페이지의 다양한 사용자를 목표로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의 제작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업무로드가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비롯,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 [표 4-1-5] 전략 3의 추진 정도 모니터링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강화 - KIC Research Reports (30주년 기념, 종결)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 KIC Research Brief (2019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강화 - Trends and Polices in Criminal Justice 창간 및 발행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지속 발간 - 온라인 성과확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온오프라인 확산강화 - Trends and Polices in Criminal Justice 지속 발행 -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cy 지속 발간 - 온라인 성과확산 지속
	■ 성과 1.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 창간 및 지속 발행 2. 온라인 성과확산 지속		

전략	2018-19년	2020-21년	2021-22년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p>1. TPCJ의 내용전개방식이 연구자별로 상이하고 질적 수준의 차이 발생 → 원내 관련 상황 공유하고 집필 개선 요청</p>		
	<p>·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 SNS Channel 강화 - KIC Newsletter 확대 - 기존 홈페이지 운영방식 분석/개선방안 모색 	<p>·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개편 - SNS Channel 강화 - KIC Newsletter 확대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p>·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플랫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모니터링 - SNS Channel 강화 - KIC Newsletter 확대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p>■ 성과</p> <p>1. 다국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중</p> <p>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p> <p>■ 문제점 및 추가과제</p> <p>멀티미디어 자료의 추가 제작 필요성 증대</p> <p>소셜 네트워크 채널의 활성화 전략 필요</p>		

제2절 | 제언 및 결론

끝으로, 금년도 국제협력실의 6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결과와 성과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제언 및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범죄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실무협력 강화

국제 형사정책동향의 분석을 통한 UN기구 및 해외 사법기관의 형사정책동향, 코로나와 범죄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한 아·태지역 형사사법전문가와의 학술교류, 제 7차 국제학술포럼의 학술적 교류, 사이버범죄 측정관련 한·미간 비교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향후에도 사이버범죄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의 지속적 영향으로 비접촉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를 비롯 향후 몇 년간 이러한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IT기술을 선도해 온 한국의 경우도 해킹, 불법콘텐츠, 전산망 공격 등 기술진보적 범죄로 인하여 개인단위에서, 기업, 국가 단위까지 피해를 입는 등 기술의 악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표면화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처방식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 동 범죄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공동연구를 통해 타진하였다. 추가적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금년의 한·미간 비교연구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집체계에서는 한국이 일원화된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비교적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늠된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적했듯이 경찰의 상담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타국가보다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혹은 인덱스 범죄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범죄학계에서는 사이버범죄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반면, 미국의 경우 사이버범죄학이라는 용어가 도입되면서, 미국범죄학회에 사이버범죄분과가 설립되는 등 사이버범죄의 연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특히, 재미의 한인 범죄학자들이 미국범죄학회의 사이버범죄분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 학술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주제로는 사이버범죄에 관해 종래의 범죄학이론을 접목하는 것이 가능 혹은 적절한지, 새로운 설명 이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탐색, IT기술에 능통한 사이버범죄자의 신규 범행수법이나 범행동기에 대한 탐색, 종래의 street crime을 위주로 분석되었던 범죄자의 기본 특성 및 심리와의 차이,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재범방지대책 탐색 등이 제시된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실무가와의 협력, 국제공조의 강화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탐지 및 수사에 있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안관련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협업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의 특성상 해외 사법기관과의 사법 공조가 절실하다. 향후 학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러한 포렌직 기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 이슈 등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범죄별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가별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어떠한지(예: 한국의 경우 그루밍입법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부분)를 상세히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근절을 위해 국가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국제 포럼, 컨퍼런스 등의 지속적 개최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첨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향후 국제협력실은 VFAC의 새로운 사업체인 APNAC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술 및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이버범죄의 발생추세 및 사이버범죄 문제의 보편성과 국제적 대응 필요성,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실체법과 소송법의 법적 조화, 사이버범죄 방지와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사이버범죄 연구에 대한 국제협력,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한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민관협력 전략 등 사법기관의 연구적 니즈 및 정책적, 실무적 니즈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 마약범죄에 관한 동남아 유통차단 및 치료재활적 접근 강화

국제 형사정책동향 분석, UNODC 동남아태지역사무소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마약의 불법 제조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마약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성마약 원료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조직범죄단체 및 이들의 범죄수법을 이해하고 역추적 하는 수사(backtracking investigations)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UNODC와의 공동연구에서는 마약범죄자의 문제를 통제와 처벌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독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을 대안적 접근으로 강조한 바 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유발적 욕구(criminogenic needs)를 알아내고, 중독재활에 초점을 맞춘 약물치료 및 비약물치료(예: 심리치료) 등이 제공되어 마약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이상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UNODC의 마약범죄에 대한 권고사안 역시, 구금이나 처벌의 대안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서 이와 같은 권고사안이 국내의 입법이나 형사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마약 수용자에 대한 약물중독치료

이수명령 등이 법제화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기본, 심화, 집중 등의 과정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등 기본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다.

UNODC와 WHO는 공동 작업을 통해 마약사범의 구금 대안으로 치료 제공에 대한 실무적 지원지침서 등을 개발하였다. 마약사범의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이를 참고하고 보건복지부, 중독관련 학회,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마약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지속적 연계가 중요한 만큼 마약사범의 출소 후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부처간 협력체의 구성 역시 필요할 것이다.

국제협력실은 마약범죄와 관련, 국제사회의 권고 등의 이행 정도, 입법보완점, 관련 프로그램 정비 등 국제협력과 정책적 니즈가 필요한 곳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적 니즈들을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3. 초국가적 조직범죄(TOC)의 지속적 연구 및 교류확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VFAC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유엔 PNI와의 사이버범죄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TOC) 관련 장기 연구협력' 전략이 본 연구원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진 VFAC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주제 영역을 '초국가적 조직범죄(TOC)'로 확대하고, 목표청증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수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정 및 성과 등 전문 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수정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향후 APNAC(Asia-Pacific Network against Crime)이라는 사업명으로 국제협력실 내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새롭게 추진될 APNAC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APNAC은 5대 초국가적 조직범죄인 ①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② 마약, ③ 부패, ④ 테러, ⑤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역내 전문가 간의 공동연구, 학술교류, 협력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된 만큼, 향후 본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지속적 연구 및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5대 초국가적 조직범죄 모두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개입되고 있어 범죄집단의 탐지 및 수사, 재판과정을 뒷받침할 형사사법제도의 마련, 특히 국제공조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국제 사법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세계검찰협회(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내년에 IAP와의 양해각서체결(MOU) 및 국제공조와 부패자산몰수에 관한 기념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어 관련 의제를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에 있다.

4. 코로나 19로 인한 범죄영향 지속 연구 및 정책 제언 필요

국제 형사정책동향의 분석, 아·태지역 형사사법 학술회의(APECCJ)의 수행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각국의 범죄발생 현황이나 사법기관의 대응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제 형사정책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국가들의 일부 지표 범죄들(폭력범죄, 살인 등)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생건수가 증가한 범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살인, 특수·중폭행, 차량절도, 방화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불법적 고리대금이나 불법 추심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APECCJ의 발표 및 토론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 이후 중범죄 증가 및 경범죄 감소추세를 보인데 반해 한국은 중범죄 감소와 경범죄 증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에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범죄영향에 있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계가 그 결과적 수치를 넘어, 통계의 보고주체나, 수집주체, 집계 방식 간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각 국가별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년도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국경의 봉쇄나 격리 조치, 사망자 수 등에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이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러한 차이에는 어떠한 해석이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탐색이 필요하다. 차년도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범죄영향에 대해 국가간 비교연구 등이 가능한 지 탐색해

78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보고, 사법기관의 대응방식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미치는 영향, 형집행의 대상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형사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윤정숙 · 승재현 · 이승진 · 나주원 · 정세윤 · 강민정.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 국제 협력 및 연구(X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2. 웹사이트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https://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general/documents/unscr-march-2019.html>.



Annual Report on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XVI)

Jeongsook Yoon · Taegyung Ghang · Youngoh Jo · Jaehyen Soung ·
Seungjin Lee · Joowon Na · Seyoon Jung · Minjung Kang · Inshik Sim · Seokbeom Kim

This year's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XVI) was accomplished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with six subprojects allocated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and the International Academic Research Team. Of the subprojects, those related to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performed b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eam, and those related to international academic events and promotion were carried out by the International Academic Research Team.

This annual report outlines the overall strategy and allocation of the projects, the performance and monitoring results of each strategy, and key highlights of the subprojects. The project of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has three key objectives, namely ① cooperation with the UN in international issues, ② building and consolidation of communication with criminal judicial author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③ preparation of intellectual platforms in various forms.

The five-year-term plan of this project had three strategies: firstly, to consolida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to prevent crime; secondly, to advance global research capability; and thirdly, to promote the research outcome around the globe. The first strategy, to consolida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to prevent crime, aim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with both the UNODC/UNPNI, and regional judicial authorities around the globe in order to reinforce Korea's status as a member state of the UN and to help the nation play a role matching it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second strategy, to advance global research capability, concerned preparing various intellectual platforms to introduce the latest works and studies in criminal justice area of the globe to the nation. Finally the third strategy, to promote the research outcome around the globe, aimed to create a multilingual website along with developing promotional contents in English, including releasing of various types of publications both online and offline. and improving the current online platforms.

The general report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e subprojects in each strategy, and contained their progress status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result of monitoring the improvement of last year's limited project performance.

The main results of each subproject, apart from the general report, are as follows. [Subproject 1: Building a cooperation network with the UN and other regional states] summarized the process of buil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with the UN and other Asia-Pacific states in order to prevent crimes, and the results of such effort. Building a cooperation network with the UN is an important task given that the world is more globalized than ever before, and there is a rising need to find a proper measure to combat crimes as they have become increasingly transnational these days. 'Consolida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is also critical to cope with growing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crimes that are new and evolving in both pattern and technique. In this context,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is committed to building and expanding its cooperation networks with not only the UN, but also many leading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Europe and North America, etc. 'Analysis of the UNODC research and policy trend 2020' examined

the studies concerning impacts and prospects of the COVID-19 pandemic, as well as preventive actions to address drugs, corruption, and transnational crime.

'Interac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N 2020' looked into more concrete accomplishments achiev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UN/UNPNI, such as the '14th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KIC-UNODC international joint study', 'participation in PNI Coordination Meetings', and 'KIC-TIJ Expert Group Meeting (EGM)'. In addition,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introduced the main features of the 1st Asia Pacific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APECCJ) with an eye towards promoting scholarly exchanges wi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the Asian-Pacific region. Some of the prominent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is conference included the Australia Institute of Criminology (AIC), a fellow PNI and an MOU partner; the School of Regulations and Global Governance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e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a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PSI), a domestic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rean police. The key subjects discussed included the changing trends and patterns in crime brought out by COVID-19; increases in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violence against women due to the lockdown as a 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impacts of COVID-19 on organized crime; human right implications of the quarantine measures against COVID-19, and changing trends in crime due to COVID-19.

'The 7th KIC International Forum(KICIF)' described the background of the theme, 'Challenges of Cybercrime as Opportunities: Prevention, Cooperation and Safety', and the overall preparation of the signature policy forum hosted by the institute. This forum is composed of four themed sessions: overview of cybercrime, cyber economic crime, cybersecurity, and cybersex crim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xperts attended for in-depth discussions concerning cybercrime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Subproject 2: Method to improve Korea's narcotic drugs policy through an

analysis of drug use in Southeast Asia] dealt with two primary subjects. First, it examined the impact of the rapidly growing, illegal synthetic drug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proved its interconnection with the Korean market. The borders of Myanmar, Cambodia and Vietnam, known as the Golden Triangle, have become the core of synthetic drug production, resulting in an overwhelming supply of synthetic drugs to the markets across Asia-Pacific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Australia from 2015, but the situation has gotten worse for the past few years. The plenitude in supply of illegal synthetic drugs across the East and Southeast Asia reveals enforcing drug policies by blocking the supply of illegal drugs and trafficking or imposing harsh punishments on drug consumers have limited effects as the flow of illegal drugs into Korea remains high.

The countries' attempts to end the supply of narcotic drugs have not been very successful. In addition, their policy of imposing harsh punishments on narcotic consumption even caused an increase in detention rates of petty crime offenders and prison overcrowding, rather than crime prevention, resulting in human right violation, poor sanitation and hygiene, and high rates of recidivism. The key argument of this research was that given the growing interconnection between Southeast Asia and the Korean narcotic drug market, the former's effectiv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narcotics control policy would be useful for Korea for developing its own policy, and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work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ies to support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campaign against narcotic drug abuse. This research introduced ① UNODC-sponsored Mek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narcotic drug control, ② sharing of hands-on experience through the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DN)'s publication of crime trend report and Good Practices Portal, and ③ the WHO and UNODC's initiative of 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addition, as an important area to support in the near future, this research emphasized reinforcing control over precursor substances,

and offering to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precursor substances control.

[Subproject 3: Comparison of Korea and the US to improve cybercrime measuring system] compared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ing systems of Korean and the US police, respectively, and sought an official crime statistics measuring system that can realize a more viable evidence-based prevention in cyber space.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 this research has concluded that Korea has a more comprehensive and meticulous cybercrime measuring system, and has put a lot of effort to improve the system which is suitabl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Domestically, in order to compare the level of effectiveness in coping with cybercrime, the project research highlighted the need to establish index cybercrimes which would help a long-term comparison of crime trends. Originally, index crimes refer to those used in measuring a country's quality of life and comparing it to that of other countries – for instance, murder and robbery, etc. To collect statistical data continuously and prove the validity of the statistics, setting up a list of index cybercrimes is necessary. The research further suggested that Korea has the ability to lead an initiative in setting up index cybercrimes as it has collected relatively larger and detailed body of statistics so far.

[Subproject 4: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VFAC) renewal] aimed to assess possibilities of renewing the VFAC project and seek proper directions of the project by reviewing the project's current performance and its present state of operation. The 'Analysis of VFAC SWOT' examined the need and methodology to analyze SWOT in order to prepare the renewal strategy of the VFAC project, and conducted a systematic SWOT analysis, therefore concluded the four strategies of SO, ST, WO, and WT, as the directions of the renewal.

The 'long-term research collaboration with the UN PNI for cybercrime and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 was then determined to be the most suitable strategy to reduce risks, shortcomings and maximize the institute's strengths and

opportunities. The key strategies matching the identity of the KIC and the fulfilling its purposes of collaboration with the UN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e expanding the VFAC's current system, which focuses on education and training, to broad topics of cybercrime and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refore changing the current target audience to experts who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s, and modifying the function of the platform from offer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providing expert information such as procedures and outcom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ubproject 5: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s a report that summarized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which was first issued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IC. As an English academic journal for criminal justice policy, the IJCJ contained evidence-based study articles that can provide the concept to criminal justice policy and legislation. Furthermore, it was made to serve as a forum for international discussion in which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relevant field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n actively exchange ideas.

In 2020, the KIC made major changes in three aspects in order to establish a well-organized operation system. First, the institute increased the number of its editorial committee members and prepared a database to expand the expert pool for peer review to prevent articles from being allocated to certain committee members or specific reviewers. Secondly, the peer review process has been performed on a regular basis in addition to the 'online first' service and DOI, so that the IJCJ could give enough time to both reviewers and authors, and provide readers with an access to the works as soon as publication decisions are made. Finally, the KIC is planning to build an online IJCJ platform for the convenience of contributors, reviewers, and organizers in the peer review process. Also, this year, a new menu for the journal will be added to the English version of the website and a separate online platform will be completed by 2022.

[Subproject 6: International promotion of research performance] reported the process of publishing research results and other publications in English both on and off-line which resulted in their dissemination abroad, and the process of updating the KIC's multilingual website in a timely manner.

The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 started its first publication this year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the KIC Research in Brief. Reports with international topics were selected and translated in detail in the form of an article. A total of nine report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after the initial release plan of one per month. At least 700 entities, including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academia, received the TPCJ. For international readers, a separate e-mail database of experts, scholars professionals, and MOU institutes was used. The TPJI is also planning to expand the distribution target through monitoring its current distribution situation.

Meanwhile, the core value of the multilingual website, which would be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advisory meetings with experts, was established as "sharing and communication". The goals of this reconstruction project were set as 'improvement of convenience', 'content development for multilingual website', 'increase in expertise of website content', 'reinforcement of website promotion',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surrounding the multilingual website', and 'strengthening of the stability in website management'. Around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of 2021, the English-language website is expected to be organized with menus in the following order as the reconstruction would be almost completed; Topics, Publications, Networks, Events, and About Us. The visibility of the banner, which highlights the entire screen, is enhanced and the time-efficiency of users is increased as tagging of facts and figures is available on the entire website.

연구총서 20-B-0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인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5283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9908-96-6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